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참 자녀로 이 세대를 살아가기가 쉽지 않지만 오직 성경에 기초한 진리를 지키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20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7년 11월 4일 (토) 제 1657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Uniting Methodists Movement” 동성애로 갈라서지 맙시다!

#### UMC, “제 3의 길” 로 해결하자는 운동 등장... 진보/보수 양측서 비판받아

동성애와 동성애자 안수 문제로, 미국 교회는 진통을 겪고 있다. 이미 갈라선 교단들은 재산권과 처리 문제로 또 다른 몸살을 겪고 있고, 평신도들은 교단의 입장 차이에 따라 대부분 보수 교회들로 수평 이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동성애와 성 소수자 목회자들의 안수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교단이 분열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연합감리교회 내부에서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바로 “Uniting Methodists

Movement”로, 이들은 목회자들에게 동성애 주제를 강요하지는 않지만 허용은 하고, 또 연합들에게 성 소수자 안수를 의무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허용하게 하는 교단의 규정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교단의 운영 지침 문서인 장정에 따르면 동성 간의 연합을 축복하거나, 스스로 “동성애 관계에 있다고 공언한” 목회자는 교회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New group to church: Let's stay together).

동 그룹은 벌써부터 양측 세력 즉 LGBTQ 측과 보수 측 교인들로부터 이미 반박을 받고 있다. 그러나 “Uniting Methodists” 그룹의 리더들은 그들의 입장이 교단 내에서 크게 의견을 내지 않고 있는 이들, 특히 동성애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가 교회를 분열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회중들과 교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의 웹사이트(http://unitingmethodists.com/)가 시작된 지 24시간 만에 1,800여 명의 교인들이 이 그룹에 가입했다. 캔자스 주의 리우드에 위치한 교회(United Methodist Church of the Resurrection)의 담임목사이자 “the Uniting Methodists Movement”의 리더십 팀원인 해밀턴(Adam Hamilton) 목사는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대화들을 들어본 내 경험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대립하는 이 두 개의 이견 축 중간에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해밀턴 목사는 일전에 동성애 예식의 주최나 동성애자 목회자를 받아들이는 여부를 개교회로 결정하게 하자라는 제안을 한 바 있다.

해밀턴 목사는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실제로도 유연성을 가질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는 보수와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더 나아가 그는 아직 자신들의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연합감리교인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Uniting Methodists Movement”가 “동성애의 허용 여부에 대한 서로 다른



지난 9월 아담 해밀턴, 톰베를린, 올루 브라운 목사가 Uniting Methodists Movement 개념을 토론하고 있다.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면서도, 동시에 교단의 분열 없이 모두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단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동 그룹은 11월 중에 애들랜다 근교에 있는 연합감리교회(Impact Church)에서 더 큰 규모의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작가이며 은퇴 목회자로 이 그룹의 임원 중 한 명인 하니쉬(Jim Harnish) 목사는 이번 행사에서 지도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예배와 공개토론회 및 워크숍 등을 가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하니쉬 목사는 지금의 “Uniting Methodists Movement”를 출범

시키기 위해 지난 5월에 모였던 47인의 교회 지도자 중 하나다.

“제가 아는 한 이 운동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신학에서는 정통파이며, 그 정신과 전통에서는 웨슬리적이고, 연합감리교회의 선교적 과제에 대해 모두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라고 하니쉬 목사는 전했다.

“우리는 진정으로 웨슬리의 ‘보편적 정신’을 따르고 싶기에, 사람들에게 성 문제에 대해 어떠한 입장인지 구체적으로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3면으로 계속)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가 지난 29일 7명의 장로를 세우고 임직 감사예배를 드렸다(기사 10면). 특히 이중 2명은 영예회중에서 세워져 다민족 선교를 향한 차세대 선교패러다임에 큰 기대를 안겼다. 임직자들과 장영춘 원로목사부부, 김성국 담임목사부부, 장로들이 함께 기념촬영 했다.

### 미국의 끝나지 않는 전쟁

#### NYT, 지구촌에서 대테러 작전 수행 중인 미국의 상황 보도

미국은 9.11테러 이후 꾸준히 전쟁 중이다. 현재 정규군과 예비군 병력 총 24만 명 이상이 전 세계 172개 국가와 지역에 파병돼 있다. 해외로 파병된 군인은 지난 60년간 상당히 감소했지만, 군대의 활동 범위는 줄어들지 않았다. 미군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예멘과 같이 언론의 주목을 받는 지역뿐만 아니라 끔찍한 공격이 계속되는 니제르, 소말리아, 요르단, 태국 등지에서도 전쟁 중이다.

추가로 37,813명의 군인이 기밀 작전을 “알려지지 않은(unknown)” 지역에서 수행 중이다. 미국 국방부는 더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뉴욕타임스는 이처럼 지구촌 분쟁 지역들에서 공개 또는 비공개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현실을 “끝나지 않는 전쟁”이라고 보도한다(America's Forever Wars).

### 현 미군병력은 전체 미 인구의 1%도 안돼

#### 실제전투에서는 대부분 지역군 희생이 커

미군은 일본에 39,980명, 한국에 23,591명을 파병해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고 있고, 나토(NATO) 동맹국인 독일 36,034명, 영국에 8,286명, 터키에 1,364명을 파병했다. 또한, 미군은 해군 기지가 있는 바레인에 6,524명, 카타르에 3,055명을 파병했다.

미국은 아프리카와 같은 분쟁 지역에

(3면으로 계속)

###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준학사 / 학사 석사 박사 수료증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D.Min), 교회음악학박사(DCM-온캠퍼스)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워싱턴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a href="http://www.wmu.edu">www.wmu.edu</a>
-----------------------------	--	---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시론 은희곤 목사 2면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담수 목사 5면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용 목사 7면



청교도 신앙 이윤석 목사 8면

## 피종진 목사 초청 11월 국·내외 부흥성회



- ▶ CTS 기독교TV 방송 생명의 말씀 - 매주 토요일 오후 4:30 인터넷 : www.cts.tv
- ▶ CBS 위성TV 방송 TV 부흥강단 - 매주 주일 오후 5:30 인터넷 : www.cbs.co.kr
- ▶ GoodTV 방송 생명의 샘터 - 본방 : 매주 수요일 오전 11:30, 재방 : 매주 목요일 오전 1:00 인터넷 : www.c3tv.com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40(개포동) ☎ : 010-5255-7777, (02)3411-9191, FAX : (02)401-7770  
E-mail : Godbless3377@gmail.com



1(수) 저녁 공주 한성행복교회(홍사라 목사) ☎010-5458-6040

### 제209차 해외성회(209th Overseas Assembly)

- 2(목)~3(금) 미국(U.S.A) KCCD(다민족세계기독교대회[이사장 박종대 목사]) ☎(714)728-9191
- 4(토)~5(주) 미국(U.S.A) LA 소망장로교회(성요셉 목사) ☎(213)487-2481
- 6(월)~8(수) 미국(U.S.A) 오직예수선교교회(신 샘 목사) ☎(213)215-6029
- 9(목) 미국(U.S.A) LA 임마누엘선교교회(백지영 목사) ☎(323)708-9191
- 10(금)~12(주) 미국(U.S.A) LA 갈보리선교교회(심상은 목사) ☎(714)229-8492
- 18(토) 오후 원당드림교회(서삼석 목사) ☎010-9913-0675
- 19(주일)~22(수) 이스라엘(Israel) 선교대회 ☎010-3443-1541  
주최: 연세대학교총동문복지자부흥협의회(총재 강영선 목사)
- 23(목)~25(토) 요르단(Jordan) 선교대회
- 27(월)~30(목) 일본(Japan) 나가사키 한일연합선교대회 ☎010-4254-4047  
주최: CBS방송국 한일연합선교교회(CBS JAPAN 본부장 정재일)
- 27(월) 일본(Japan) 뉴카 엘리야호 선교 부흥회
- 28(화)~29(수) 일본(Japan) 히라도, 사세보 순교자 기도회 및 한일선교를 위한 문화교류





시론

오직 그 분 안에서만!



은희곤 목사 (참사당교회)

왕이 새로운 왕궁을 건축하라고 명령합니다. 명을 받은 건축가는 왕궁의 각방에 설치할 거울들과 유리들을 다른 나라에 주문합니다. 안타깝게도 거울과 유리들은 운반 도중에 모두 깨져 버립니다. 건축가는 실망했고 깨진 유리 조각들을 버리려고 합니다. 그때 그곳에 있던 한 남자가 “어쩌면 깨진 거울과 유리들이 더 아름다울지도 모릅니다. 그것들을 벽이나 창에 붙여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합니다. 건축가는 고심 끝에 깨진 거울 유리 조각을 이리저리 왕궁의 벽, 창, 기둥 등에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깨진 거울 유리 조각들마다 빛이 여러 방향으로 반사되어 왕궁 안은 찬란한 빛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감탄한 왕은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에게 “어떻게 깨진 거울 유리 조각을 사용할 생각을 하였는가?” 물어봅니다. “저는 예전에 양복점을 운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의 옷을 만들고 나면 자투리 천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천들을 모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옷을 만들어 나눠줬습니다. 그때 가난한 자들을 위해 자투리 천으로 만든 옷들이 부유한 귀족들의 그 어떤 옷보다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투리 천들처럼 깨진 유리들도 이리저리 모아 연결한다면 더 아름다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전해진 이야기들 중 한 토막).

우리의 삶도 때론 깨진 유리 조각들처럼 산산조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깨진 거울 유리”가 주는 교훈을 떠올리면 어떨까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깨지고, 부서진 거울과 같은 우리들의 인생을, 다시 붙이고, 짜깁기 하시고, 이어서,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인생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깨진 유리 조각들이 오히려 아름다운 왕궁을 만들어낸 것 같이, 우리의 인생들도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 안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나를 만드시고, 인간의 생사화복과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 바로 그 분 안에서만 일어나는 치료와 위로와 회복과 소생의 역사입니다.

지난주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현재 남-북 대치가 어떻게까지 위기인 적이 없다고들 합니다. 혹자는 그에 반하여 또 다른 분명한 하나는 세계 정치와 경제 구도의 역학관계 속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은 일어날 수 없다고도 단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쟁은 항상 우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럴 때일수록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한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한반도에 다시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따름입니다.

저는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미국에서 사용하는 제 전화기를 갖고 가서 한국통신의 심카드를 끼어 사용해왔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작동이 잘되었는데, 이번에는 문자와 데이터만 되고 전화가 안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한국통신의 광화문, 명동지사들을 방문했고, 그들은 친절하게 이모저모를 살펴봐 상담하고 시도했지만 결론은 미국 전화 회사에서 락을 풀지 않았으니 그쪽으로 연락해서 락을 풀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연락을 취했더니 자기네는 워낙 락을 하지 않는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마침 있던 곳 근처인 강남지사 방문해서 사정을 다 설명했더니 최종 상담부서와 직접 저와 연결해줘서 설명을 했고 그쪽에서 여러 시도를 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상담원은 이것은 통신회사가 아니라 전화기의 문제인 거 같으니 근처에 삼성 핸드폰 서비스사를 방문해 보라고 알려줘서 찾아갔습니다. 상담원에게 그동안 있었던 문제들을 말하고 잠시 기다렸더니 불과 3분 만에 문제가 해결되고 다 작동이 되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 전화기 안에 있는 한 부분을 터치하니 곧바로 해결됐던 것이었습니다. 3군데 지사들을 찾아가고 전문가들과 상담하고 마지막 상위 부서에서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단 3분 만에 해결되다니... 참 어이가 없었지만 그 가운데서 한 가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 전화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리저리 시도했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 전화기를 만든 사람들은 그 원인을 이렇게 빨리 발견하고 해결하는구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인생을 살면서 발생하는 이런저런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사람들을 찾아가고 시도하고 노력하지만, 결국 문제의 해결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위기의 한반도의 해법도 역시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심지가 굳은 자(사26장)가 되게 하셔서,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위기의 한반도가 평화의 한반도 한민족이 되도록 이끌어주소서! 인간의 생사화복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pastor.eun@gmail.com

“찬송은 다 같이 불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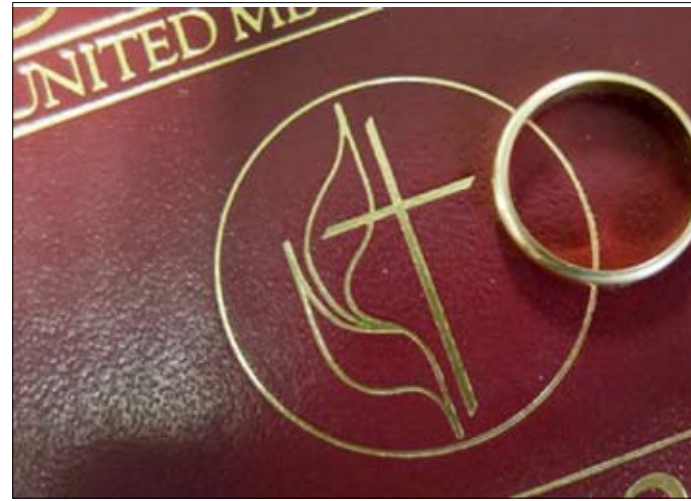
처치리더스.컴, 조지 비스 목사를 통해 ‘교회가 찬양하지 않는 이유’ 제시

조지 비스 박사(Dr. Josh Buice)는 조지아 주 애틀랜타 바로 서쪽, 더글러스빌의 침례교회(Pray's Mill)를 섬기고 있다. “G3 집회”의 창립 책임자이자, 신학 블로그(DeliveredByGrace.com)에

글을 쓰고 있고, 강해설교와 성서학, 지역 교회에 대해 열정적이다. 그는 미국교회에서 찬양하지 않는 이유를 정확하게 짚어낸다(6 Reasons Why the Church Is Not Singing).

교회 집회에 참석하면서 가장 좋은 것 중 하나가 찬양이다. 매해 열리는 ‘G3 컨퍼런스(www.G3Conference.com)’에서 회중 찬양의 몇 곡은 그대로 기억하기 위해 녹음하려고 애쓴다. 이번 주에는 ‘T4G’ 컨퍼런스를 생방송으로 듣는데, 1만여 명의 사람들(남성이 대다수)이 열정적이고 담대하게 부르는 진리의 찬송가에 감격했다.

지난 11월에 나(Josh Buice)는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태버



였다. 성경말씀 외의 모든 노래는 사도가 아니라 목회자와 신학자, 학자, 음악가들이 썼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래된 찬송으로 곡들을 제한하는 것은 비극일 수 있다. 그러나 깊이 있는 가사와 적절한 음악적 편곡을 담고 있는 신학적으로 풍성하고 훌륭한 찬양들이 대개 가벼운 찬양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가벼운 찬양은 확실히 예배에서 필요한 신학적 깊이가 떨어진다. “어찌 날 위함이었는지(And

찬양은 남녀 모두 불러야..특정인들만 불러선 안 돼

가정에서도 찬양...현대찬양의 가벼움과 부족함 보충

혁신적 미디어 기술은 예배의 강력 도구 또는 큰 장애물 될 수 있어

나를(Metropolitan Tabernacle), 찰스 스펄전을 비롯해 영국의 유명 목회자들이 사역했던 침례교회에 갔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여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데 감동 받았다. 그곳에는 환상적인 조명, 스피크 머신도 없었다. 기술적 효과도 최소한으로만 사용될 뿐이었다. 아들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왜 교회는 주일에 찬양하지 않는 걸까?

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복음을 찬양하는 것이다. 다윗은 시편 9편 11절에서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라고 했다. 확실히 다윗은 그 중요성을 이해했지만, 슬프게도 오늘날의 교회는 영광의 주님을 찬송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적어도 복음주의 교회 예배당 대부분이 주일에 조용한 걸 보면 이런 사실인 것 같다. 이에 왜 교회가 찬양하지 않는지 6가지로 제시해 보았다.

1. 남성들이 찬양하지 않는다

슬프게도 남성들이 찬양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이다. 대개 교회에는 남성보다 여성의 출석률이 높을 뿐 아니라, 출석하는 남성들도 회중 찬양하는 동안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는 경우가 많다. 찬양의 중요성과 관련해 찬양의 흐름이나 제자도 부족이 이유일 수 있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남성들은 오늘날 교회에서 찬양하지 않는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하지만, 해답은 실용적인 방법이나 설문조사에 있지 않다. 성경적 제자도와 적절한 예배 곡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 목회자 컨퍼런스에 가서 남성들이 하나가 돼 목소리를 높이는 걸 들으면 정말 감격스럽다.

2. 교회가 찬양을 잘하는 특정인들에게 찬양을 맡겼다

주일에 교회가 찬양하지 않는 한 가지 이유는 교회가 찬양의 책임을 전문가에게 넘기기로 했다는 데 있다. 찬양대와 찬양팀은 주로 교회의 예배에서 찬양의 책임을 맡고 있다. 찬양팀에서 소리가 큰 음악을 끄고 드럼을 치지 않고, 기타의 플러지를 빼고 싱어의 마이크를

없애면 결과가 여실히 드러난다. 주일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문가들’이 찬양하는 동안 찬양의 가사를 중얼거리다.

우리는 가사를 중얼거리라고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주님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부르심 받았으며, 입술로 조용하게 중얼거리며 찬양할 수는 없다.

3. 찬송가의 자리를 가벼운 찬양이 대신하게 되었다

예배에서 새로운 찬양을 한다고 해서 잘못되거나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케이스(Keith)나 크리스틴 게티(Kristyn Getty)와 같은 현대 찬송가 작곡가와 새로운 찬양을 쓰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찬송가에 수록된 대부분의 찬송도 예전에는 새로운 노래

Can It Be)는 “주의 이름 높이며(Lord I Lift Your Name on High)”로, 찰스 웨슬리(Charles Wesley)가 크리스 톰린(Chris Tomlin)으로 바뀌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CCM 차트 상위에 올라간다고 해서 예배에 적합하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예배에서 찬양을 정할 때 소통의 신학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매주 새로 나온 최신 찬양이 계속해서 사용되는 동안, 수백 곡의 좋은 찬송가들이 조용히 책 속에 갇혀 있다.

예배 곡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한 임무이고 목회자의 설교와 맞물린다. 오늘날 예배에서 주로 새로운 찬양을 부르는 것에 대해 데이비드 고든(D. David Gordon)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4면으로 계속)

<p><b>미주크리스천신문</b> The Korean Christian Press</p> <p><b>· L.A. Office</b>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gmail.com</p>	<p><b>■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b> <b>■ 편집국장: 유원정</b></p> <p><b>· N.Y. Office</b>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cpress@gmail.com</p>
<p>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p>	

본 교회는 창립 33년 되는 LA 소재 교회로 투철한 소명과 이민 목회의 새로운 지평을 함께 열어갈 부교역자를 청빙합니다.

1. 부 목사님 (Full Time)

- 정규 신학대학원 이상 졸업자로서 목사 안수 받으신 분
- 40세 미만의 기혼자
- 한국어외 영어 소통이 원활 하신 분
-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자

2. Youth Group (중고등부) 전도사님 (Part Time)

- 정규 신학대학원 졸업자나 재학중인 분
- 영어 설교 가능하고 이중 언어 가능하신 분
- 체류 신분이 합법적인 분

3. 찬양 리더 (Part Time)

- 찬양에 탁월한 재능이 있는 분으로 기타나 키보드로 찬양 리더가 가능한 분.

제출서류

1. 이력서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본인 및 가족 사진)
2. 자기 소개서 (신앙 간증 및 목회 소명)

제출기한 및 방법

1. 제출서류 마감: 11/30/2017 까지
2. 제출방법: 모든서류는 메일로보낼것

Email: lalkcyoon@gmail.com  
lk0085@sbcglobal.net

사랑한인교회

2801 W. Temple St. L.A., CA 90026  
담임목사 하재석

교회설립 33주년 부흥성회

참된 부흥을 주옵소서

(아박국 3장 2절)



- 감리교 신학대학 졸업(B,TH)
- 예일(Yale)신학부 졸업(M,Div)
- 드류(Drew) 대학원 철학박사 (PH,D)

- 한국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 역임
- 만모스 한인연합감리교회 창립 시무
- 1985년 베다니교회 창립 시무
- 현 베다니교회 원로 목사(2015.7-)

강사: 장동찬 목사

날짜: 2017년 11월 9일(목)-12일(주)  
저녁 7:30pm(목,금,토)  
새벽 5:30am(금, 토)  
주일 1부 9:00 am / 2부 10:50 am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한인교회

2801 W. Temple St. L.A., CA 90026  
교 회: 213-380-0085 | 목사관: 213-407-2353



### “Uniting Methodists Movement” 동성애로 갈라서지 맙시다!

(1면에서 계속) 아울러 하니쉬 목사는 11월에 있을 컨퍼런스에는 연합감리교회의 신학자 필드(David Field)의 발표도 있다고 전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인 필드는 스위스에 기반을 둔 연구기관(the Methodist e-Academy)의 학술담당자이기도 하다. 그는 연합감리교회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교착상태를 넘어설 방안을 특별총회에 추천해 달라고 총감독회가 위임한 위원회(Commission on a Way Forward)의 멤버이기도 하다.

그러나 동성혼과 동성애자 안수를 위해 연합감리교회 진보적 목회자들로 구성된 네트워크(Reconciling Ministries Network)은 “Uniting Methodists Movement”의 제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동 네트워크는 성명서(United Methodist Queer Clergy Caucus)를 통해 이 그룹이 지향하는 방향이 교회의 일치를 위해 보수자들의 전적인 포용을 포기함으로써 LGBTQIA+ 그룹과 그들의 우호자들 사이에 형성된 은혜로운 동맹을 무너뜨릴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새롭게 결성된 이 그룹은 교단 내에 보수적 지도자들의 비판도 받고 있다. 인간의 성에 관해 현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원칙들을 고수하자고 주장하는 그룹(Good News)은 “Uniting Methodist”의 제안을 “상당히 이색적이며 양으로 반드시 제안을 불러올 수 있다”고 했다.

은퇴 목회자인 필립스(Bob Phillips)목사는 “the Uniting Methodist Movement에 대한 여섯 가지 질문”을 블로그에 적었다. Good News의 견해와 마찬가지로, 그 또한 Uniting Methodists의 제안이 교회와 인간의 성에 관련된 제안들을 심의하는 2019년 특별 총회에



서 통과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한다.

또 다른 보수 세력(Wesleyan Covenant Association)은 성에 대한 교단의 현 규정으로 “책임 묻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교단이 갈라질 수밖에 없다고 특별위원회에 촉구한 바 있다. 그들은 또한 “Uniting Methodists Movement”가 제안한 것과 같은 “지역적인 방안 모색”에 대한 그 어떠한 형태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위원회에 전달했다.

연합감리교회는 과거에도 갈라진 적이 있었다. 연합감리교회의 전신이었던 감리교단은 노예 문제로 미국의 남북 전쟁이 있기 16년 전인 1844년에 갈라진 바 있다.

“Uniting Methodists Movement의 임원”이자, 전직 백악관 공보 비서이며 연합감리교회 소속 웨슬리신학교의 교수였던 맥커리(Mike McCurry)는 오늘날 미국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을 교단에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감리교회 내에서 우리의 정적이 담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다른 입장으로 인한 분열을 조심스럽고 진실하게 다룰 때 교인뿐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미국 전체를 분열시키고 있는 문제와 씨름하고, 어려운 쟁점들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라고 그는 UMC 뉴스서비스에 전했다.

### 미국의 끝나지 않는 전쟁

(1면에서 계속) 네이비실(Navy SEAL) 요원 한 명은 소말리아 지역에서 지난 5월 작전 수행 중 사망했다.

지난 10월 14일, 사막 병력이 모가디슈(Mogadishu) 거리에서 펼친 대대적인 공격으로 약 27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공격은 사막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약 800명의 요원이 니제르에 파병돼 있고, 그 지역에서 그린베레(Green Berets) 요원 4명이 지난 10월 4일 전사했다.

이중 상당수가 대테러 작전에 투입돼 있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이라크, 시리아의 IS, 예멘에서는 알카에다 추종세력과 대치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의 행보를 보면 미국은 이런 작전들과 파병을 영원히 지속할 것처럼 보인다.

막대한 국방 예산을 쓰고 지난 16년간 수많은 희생자를 낳은 이런 행보를 이어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거친 위협과 이해하기 어려운 의사결정을 하면서 북한과 이란과의 외교에서도 군사력이 동원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만으로도, 이제는 얼마나 다양한 지역에 미군이 파병돼 있는지 확인하고 이런 국방비 투자가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이러한 국방 기조를 얼마나 유지할 것인지, 단순히

테러리스트들을 사살하는 것보다 더 정교한 전략은 없는지 고민해봐야 한다.

의회는 안타깝게도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다. 시민들이 침묵하는 이유는 아마도 소수의 가족이 대부분의 국방 부담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이고, 이제는 베트남처럼 수많은 미국인이 희생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처럼 시민 운동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의회가 이런 주제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파병이 왜 필요한지 논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회는 IS와의 전쟁을 멈추기 위한 버지니아 주 상원의원 팀 케인(Time Kaine) 외 몇몇 의원의 노력을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지속해서 무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전임자와 같

이 2001년 알카에다를 상대로 전장하는 것을 승인한 법령으로 IS와의 전쟁 역시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니제르 비극 이후 상원 외교위원회 의장인 테네시 주 상원의원 밥 코커(Bob Corker) 의원은 이와 같은 안에 대해 승인하기 전 적어도 청문회는 하기로 합의했다. 그 청문회는 10월 30일이다.

이라크에서 아들을 잃은 예비역 대령 앤드류 바세비치(Andrew Bacevich)는 “전쟁에 대한 집단적 무관심이 현재 미국의 상징이 됐다”라고 말한다. 미국인이 전쟁과 공포에 익숙해졌다는 생각은 무섭고, 이런 생각은 결국 더욱 위험한 의사결정의 기초가 된다. 이런 흐름이 이어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베트남전을 포함한 지난 전쟁의 경우, 징병을 통해 군인을 모집했기 때문에 징집될 위험을 미국 가족 모두, 즉 모든 미국인이 공유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은 모든 군인이 모병제를 통해 선발된다. 현재 미군 병력은 전체 미국 인구의 1%가 채 되지 않지만,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전체 인구의 12%가 군대에 있었다. 이제는 가족 구성원 중 군

인이 거의 없다.

또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철수한 뒤 사상자 수가 많이 감소했다. 그리고 최근 미군은 공군력과 정보력을 제공하면서 지역 군인을 훈련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선회했다. 대부분 실제 전투를 하고 희생되는 군인은 그 지역군인 경우가 많다.

(8면으로 계속)

### 목회 칼럼



김신일 목사 (유니온교회)

###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힘들고 지칠 때면, 특별히 무엇인가가 잘 안 되어 실패했다고 느낄 때면 저는 조용히 요한복음 20장의 그 갈릴리 해변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을 부인함으로써 크게 실패했던 베드로와 그를 사랑하여 다시금 당신의 품으로 안아 주신 예수님과의 재회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면서 저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 순간, 제 안의 공금함이 저를 놔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뜬금없어 보이는 질문이 아닌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수 있는가?” 잠잠히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두 번째 주님 물으심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목적과 방향을 잃고 무기력하게 움직이고 있는 베드로의 삶에, 새로운 사명을 불어넣어 주시려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지금, 그대로 놔두면 남은 평생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나 잡으면서 서성이다가 저의 인생을 마칠 베드로를 새로운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물론 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이 별 볼일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처음부터 베드로를 분명한 목적, 즉 저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목적으로 불러내셨음을 기억합니다. 하여 주님, 이제 다시금 저의 사명을 재확인하시면서 물으신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옵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저의 시선을 그 실패한 자신에게 두지 말고, 예수님 당신께 두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경험해보셨죠? 실패했을 때, 사단은 우리를 계속하여 그 실패의 자리에 있게 합니다. 우리를 송사함으로 우리로 그 실패에 묶어 있도록 합니다. “그게 베드로냐. 그게 네 주재야. 너는 앓되. 너는 가망 없어. 너는 절대더러 나아질 수 없어. 네 실패를 봐.”

인생길을 가면서 이런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행여 그 실패가 오늘 나의 힘 있는 믿음의 길을 가로 막고 있습니까? 그 실패의 경험과 결과가 여전히 쓴 뿌리로 작용하고 있습니까? 주님 여러분께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나 그 순간 주님이 베드로의 시선을 돌리게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로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십시오.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당신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원하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분의 시선을 응시하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주여 그러하옵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토 달지 마시고, 이것저것 핑계하지 마시고 대답하십시오.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내 사랑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 데요, 빼고 싶어도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이미 다 아십니다. 하지만 주님 정말로 확인하고 싶으신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입니다. 주님께는 그것이 공금하세요. 그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시오.

### 11월 5일부터 서머타임 해제



### 시계 오전 2시에서 1시로 돌려야

11월 첫 주일인 5일 밤을 기해 서머타임이 해제된다. 오전 2시가 오전 1시가 된다. 토요일인 11월 4일 잠들기 전에 시계바늘을 한 시간 뒤로 당기면 된다.

남가주 목사장로 부부 찬양단 www.pecpc.com

# 남가주 목사장로 부부 찬양단 제10회 정기 연주회

2017. 11. 11 (토요일) 저녁 6시

장소: 세계아가페선교교회 933 S. Lake St., Los Angeles, CA 90006

문의: 총무, 백선용 목사 213.550.8778 / 서기, 문재성 목사 818.454.2274



단장 강평근 목사



지휘 이재재 목사



피아노 헬렌박 집사



올겐 샤론리 사모

특별출연: LA남성선교합창단, Los Angeles Young Players, 에버그린어성합창단







자신이 공평하여도 남에게 주는 자들이 있음을 본다. 자기형편 생각하지 않고 이웃에게 나누고 베푸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절로 복 받기를 기도하게 된다. 성경의 뜻도 그러하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모습들을 보며 주재 파악을 못한다고 할 것이다. 자기 꼬라지가 그러면서 어떻게 남에게 퍼주고 사느냐고 말할 것이다. 바보스럽다고 비판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한결 같이 돕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분들에게서 결국 하나님이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를 보게 된다.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설**

성경은 뿌린 대로 거둘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역설이 많다. 우리 생각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다. 자기 목숨을 잃어야 오히려 살게 된다(눅 17:33)고 하신다.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본다(요12:24)고 말씀하신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마20:27)고 말

로부터 좋은 소리 들겠는가? 그렇지 않다. 성도들의 삶에 복을 보기 어렵고, 교회의 미래와 저들 삶의 영역에서도 좋은 열매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LA폭동이후 이민사회의 반성에서 나온 내용 중 하나이다. 한인들은 미국에 와서 돈 벌 목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흑인 동네에서 마켓을 열고 열심히 일했다고 한다. 백인동네에서 마켓을 연 사람은 극히 드물었고, 대부분 흑인들이 밀집한 곳에서 거기서 가게를 하며 주얼리 팔고 옷 팔고 티셔츠 팔고 그렇게 돈을 모았다고 한다. 그 결과, 돈을 벌게 되니까 동네 들어올 때는 영어도 못하고 거지 꼴로 들어왔는데 실제로 보니 돈 벌어서 비벌리힐즈에 집 사고 차는 벤츠타고 다니고, 그런데 일하러 올 때는 털털 거리는 차를 타고, 흑인이 몰건 하나 훔쳐 가면 니그로라고 욕을 하니 흑인들 이 흥분하며 집중 공격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

한국 사람들이 흑인동네 가서 돈을 벌고도 동네에서 잔치가 열리거나 커뮤니티에 필요한 게 있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을 굶어모아서 저장하려는 건데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부지런히 주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주는 생활을 해야 한다. 반드시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요, 후히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해서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는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행복과 축복**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축복과 행복은 움켜지는 게 아니라 나눠주고 베푸는데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 남에게 나눠 줄 줄 모르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이 어떻게 되든 모으려고만 하는 사람은 재는 모을 수 있지만 행복을 가질 수는 없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다. 그런 사람은 근심과 걱정을 모으는 것이고, 나중엔 신경쇠약, 노이로제에 걸려서, 정신병으로 찾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소유해도 그 다음에 오는 허무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만다면 정신질환에 빠

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심지어 사도행전 2장35절에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까지 말씀하신다. 그래서 복된 성도가 되고 복된 가정이 되고 복된 국가가 되고 복된 교회가 되려면 인생의 목적이 움켜잡고 소유하는데 있는 게 아니라 나눠주는데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미국의 축복-나눔**

미국의 원조를 받지 않는 나라가 없었다. 이 나라의 통치가 주는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못 주겠다고 한다. 가지고 움켜쥐려고 한다. 우리 자신들만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트럼프가 하니, 크리스천 신앙의 개념이 깨어지고, 이것이 미국을 위한 정치라고 하지만 오히려 삶은 덜 행복해지는 것을 본다. 갈등과 분열이 격화되었다.

지금까지 미국은 수많은 나라에 많은 것을 쏟아부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경제대국이 되었고, 중국의 1/4 밖에 안되는 인구가 기적 하나로 중국을 주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올해 10월은 종교개혁 500주년인 되는 의미 있는 달로 목사님을 통해 들었습니다. 로마의 핍박을 피해 카타콤에 숨어 신앙을 지키던 초대 교회가 신앙의 자유를 얻은 후에 어떻게 교회가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사우스베이에서 권명옥 권사

**A:** 참 좋은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부터 4세기 초반까지 초대교회는 로마제국의 무서운 핍박을 받았습니니다. 그런 핍박의 시기에 교회는 카타콤 지하교회로 들어가면서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며 잘 살아 남았습니다. 그러다가 4세기 초반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밀라노 칙령'이 주후 313년에 발표되고 곧이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지하교회가 사라지고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한 흥 목사가 쓴 "종교개혁의 히스토리"라는 책을 보면 국가의 왕과 귀족들이 교회로 들어오면서 다 크리스천이 되었고 왕궁같이 화려한 교회들이 국가의 지원 속에 세워지면서 갑자기 감독들과 주교가 막강한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정교 유착의 시작이었습니다. 왕은 공권력을 동원하여 교회 성직자를 돕고 수많은 교회당 건축을 지원했습니다. 기독교가 국가 종교가 되면서 이교 제사는 금지되었고 이교도들의 사원은 문을 닫았습니다. 어떤 사원들은 일부 과격한 극단적 크리스천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교회와 국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돈독한 밀원관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권력을 갖고 결국 타락의 길 걸어**

다. 수많은 유희행위와 행사들이 주일에 열리는 것이 금지되었고 세금과 사적인 빚을 걷는 것도 주일에 금지되었습니다. 교회는 국가가 과부와 고아, 죄수와 노예,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인간적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로 인해 전통적인 검투사 경기가 폐지되고 차별받던 여성들의 권익도 향상되었습니다. 한동안은 마치 천국이 땅에 임한 것 같이 매우 좋았습니다.

국가와 교회의 연합으로 인해 크리스천 제국시대의 교회는 핍박을 받던 때에는 불가능했던 많은 좋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동시에 수많은 새로운 유혹에 직면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국가의 정치권력이 수연스럽게 교회 일에 개입되고 교회가 국가의 정치에 개입했습니다. 교회 치리가 느슨해지고 교인이 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아주 멋있는 유행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교인들은 희생하고 헌신하려 들지 않았고 교회는 정부로부터 부동산과 여러 기부금을 받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직자들은 지방과 수도의 모든 지역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많은 사례를 받았고 국가 고위 공직자에 준하는 예우를 받았습니다. 성직자들은 세금이 면제되었고 대부분의 공익의무에서도 열외대상이었습니다. 이 특혜로 인해 많은 부유층의 자제들이 세무혜택을 위해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부유층들이 성직자가 되는 것을 금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많은 성직자들이 말씀과 기도위주의 목회보다는 교의 증과 함께 즐기는 일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정부로부터 아주 많은 재정적 지원을 받았고 개인의 유산도 교회 재산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었는데 중세기에 이르러서는 유럽부동산의 40%를 교회와 갖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교회 경내에 있는 크리스천의 분쟁은 감독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었고 감독의 결정은 곧 국가의 결정으로 존중되었습니다. 결국은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와 국가는 함께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찬송은 다 같이 불러야 한다!"**

(4면에서 계속)

사람들이 찬양하기를 바라지만 이는 모든 사람들이 전체 과정에 집중해 단순한 감정적 행위뿐만 아니라 제자도와 학습 도구가 되기를 바란다. 마크 데버(Mark Dever)는 다음과 같이 썼다.

"성경적 정확성, 하나님 중심, 신학적-역사적 전개, 나 중심의 부재, 가사의 어조를 보충하는 음악, 이런 것은 찬송가이든 합창이든 좋은 찬양 예배라는 뜻이다."

현대 찬양은 "7-11 songs"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 냈다. 이런 곡들은 종종 반복을 많이 사용한다. 만약 7분 분량의 노래에 딱 두 줄의 가사만 여러 번 반복된다면 예배에 가장 어울리는 곡이 될 것 같지는 않다.

현대 찬양에서 많이 부족한 것 중 하나가 시적 요소다. 성경의 시편을 읽고 교회 역사 속 찬송에 대해 생각해보면 거기에는 곡과 성도를 연결할 수 있는 시의 문법적 요소를 종종 사용하고 있다. 시와 잘 짜여진 가사는 자연스럽게 진행돼 사람들이 곡조의 변화를 빠뜨릴까봐 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부를 수 있게 한다. 자연스럽게 지 못한 곡은 영과 진리로 질서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끌지 못할 수 있다.  
davidnjon@yahoo.com

6. 미디어에 마음을 빼앗긴다

혁신적인 미디어 기술은 예배에 훌륭한 도구로 사용되지만, 마음이 찬양과 잘 맞지 않으면, 성도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찬양하지 않는 성도에게 일으키는 큰 문제 중 하나는 예배에 미디어 기술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프로젝터가 빨리 돌아가거나 어색하게 비추면, 성도가 찬양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빼앗을 수 있다. 요약하자면, 미디어 기술과 기술 진보가 회중 예배에 강력한 도구일 수 있으나 또한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 목사와 교회 리더들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올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매우 좋은 찬양을 선택할 책임이 있다. 우리가 찬양하도록 부름을 받았지만, 솔직하게 말하자면 교회에 끊임없이 여성 성도들의 목소리만 들리고, 대부분 조용히만 찬양하는 이유를 풀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종교개혁은 일상적인 언어로 성경을 전달해주었을 뿐 아니라, 이와 더불어 찬송가도 썼다. 오늘날 종교개혁이 계속 지속되면 분명 교회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방법에서 나타날 것이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찬사 제자들교회)



**은혜에 넉넉한 인생, 인색하지 않는 세상살이**

-성도, 가정, 교회, 국가, 나눔과 베품이 축복

씀하신다. 성도의 세상살이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설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아이의 도시락 한 끼를 드림으로 어린 아이까지 2만명 가까운 사람들이 먹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는 일들을 보게 된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다들 배불리 먹으면 되었지만 남는 것을 거두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다 가져오라고 하셨다. 거둬서 뭘 하시겠다는 것인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먹고도 열두 광주리를 얻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가진 것이 고기 두 마리와 딱 다섯 개였는데, 이렇게 주고 나눈 거두어들이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함 배라'는 주님의 역설, 주님과 함께하고 배고픈 빈들에서 나의 형편을 넘어서서 나누게 될 때 어찌되는가를 분명하게 증거하시는 내용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거덜 날 줄 아는데 주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것을 도와주고도 너희에게 남는 것이 있을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의 한부분이다.

한 여인이 자기의 비싼 옥합을 주님께 부어드릴 때 낭비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은 마귀적인 것이다. 예수님은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하셨다. 낭비나 허비가 될 수 없는 일이다. 낭비가 무엇인가? 아무렇게 쓸데없이 그냥 비싼 걸 버리듯이 했다는 뜻인데, 오히려 우리 주님은 이것을 보고서 좋은 일을 하였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비판한 가롯 유다에게 '너는 모른다. 너는 알지 못한다. 너는 깨닫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셨다. 반면에 마리아에게는 주님의 풍성한 칭찬이 돌아왔던 것이다.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 칭찬받는 일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었는가?

**주는 성도 주는 교회가 복이 있음**

좋은 것을 많이 나누고 뿌리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복이 있다. 주님이 교회를 설립한 목적이 된다. 교회를 생각해보라. 아무것도 주는 것 없이 돈만 모아서 잔羹만 크게 짓고 자기들끼리 먹고 잔치하면 교회가 어찌되었는가? 사회

으면 땀 한 톨 내놓는 사람이 잘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니까, 그때 한국 사람들이 직접적 원인이 아님에도 엄청난 게 많은 재산을 잃었다 한다. 게다가 텍스보고를 제대로 안하니, 가게는 불타 버리고 정부가 됐든 보험이 됐든 텍스보고 한 게 없으니, 근거가 없어서 피해복구에 어려움을 보았다는 것이다. 어쩌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겠는가?

그러나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자신의 부족함을 크게 보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복이 아니겠는가? 실제로, 이 사건 이후로 어려움도 많았지만, 이민사회에 나눔을 실천하는 새로운 경종의 기회가 되었다고 한다.

**하나님의 경제학-먼저 주라**

최선을 가진 인생은 주는 것과 나누는 것에 인색하다. 신앙생활이 바닷물 질 때에 드러나는 현상은 주는 게 역올한 거 같고, 시간 들이고, 돈 들이는 것을 역올한 것으로 말한다. 나중에는 하나님께 드린 것마저도 돌려달라고 원망의 소리를 한다. 지극히 어리석은 모습이다. 은혜를 받았는가? 삶속에서 은혜에 합당한 실천이 있어야 한다. 말씀순종에 대한 열매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은혜에 넉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세상살이에서도 인색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어야 한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세상은 주는 것이 있어야 받는 것이 있다는 기브 앤 테이크를 말한다. 그러나 성경, 하나님의 경제학은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려 넘쳐도록 하여 안겨줄 것이니 먼저 주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경제학이요, 역설적인 논리이며 진리이다. 이것이 진리를 아는 성도의 세상살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성경에 입각한 역설적 경제 원리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경제학을 몰라서는 풍성해지지 못

지게 되고 마귀가 끌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복을 얻었지만,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었는가? 비록 저축은 하지 못해도 하나님께 드리고 난 나머지를 남에게 나눠 주는 그 사람은 뱅크에 돈을 없애지 몰라도 결국은 많은 것을 세상에서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보게 된다.

성도들이 받은 것을 움켜쥐기만 하고, 쓸 줄 모르면 마침내 죽은 인생이 된다. 그러나 나눠주는 성도들은 결국 갈수록 기뻐하고 나중엔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본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다.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후히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도 줄 것이다.'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주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은 복이 없다.

**교회의 부흥-나눔**

교회도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초대교회 시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라. 그들은 성령이 임하자마자 저들은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차고 넘쳤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하게 임했는데 그 후 저들의 삶이 어땠는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고 기록한다.

더불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는데,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신다. 교회가 막 가득 차게 되어서 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중요한 게 '함께 나누었다'는 것이다. 예수의 은혜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기쁨으로 섬김으로 마침내 교회의 아름다운 부흥, 주님의 뜻을 저들이 드러내었다는 사실이 다.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인색함을 버려야 한다. 나눠주는 은혜가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잊

무르게 되었다. 러시아가 그렇게 땅이 크고 인구가 있어도 미국의 3억5천 인구를 어떻게 능가하지 못한다. 주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가? 그러나 그 흘린 희생의 피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셔서 오늘날까지 미국만큼 전 세계에 복 받은 나라가 없는 것이다.

중국만 하더라도 뭘 하나 도와주면 속속으로 삼으려 한다. 기본 나쁘면 고약한 힘으로 막 작은 나라를 무시려고 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았다.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입양아를 키우는 나라가 어디인가? 미국이다. 전 세계 아이들을 입양하는 최고의 국가이다. 1년에 5만명이 들어온다고 말한다. 수많은 고아들이 입양돼 미국 가정에서 자라와서 살고 있지 않은가?

또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지 않나? 이런 미국이 망했는가? 아니다. 오히려 강대국이 되었고 하나님은 채워 넘치게 해주셨다. 그런데 요즘 미국은 그 방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움켜쥐는 쪽으로 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미국이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인색함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아님**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업이나 교회 사업은 돈을 많이 쓰면 쓸수록 손해가 아니며 낭비가 아니라 큰 유익이요, 행복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러므로 아까워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회가 있는 대로 써야 한다. 그리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되돌아오되 누르고 흔들려 넘쳐도록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신앙의 문제만이 아니다.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국가도 주님 말씀 따라 나누고 베푸는 그런 은혜를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인색함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세상살이 삶의 원리가 아니다.  
davidnjon@yahoo.com



##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 인도의 브힘(Bhim)



인도는 4개의 주요 지역으로 나뉘질 수 있는데, 히말라야 산맥, 북부 하천의 평야 지역, 데칸 고원, 동서부 가즈 산맥이 있다. 다양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기후조건 또한 계절과 지역에 따라 열대기후에서 온난기후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복잡성의 한가운데에 23,800명 정도의 브힘족이 살고 있다. 그들은 동부지역에 있는 트리푸라 주에 주로 거주한다. 그들의 언어는 분류되지 않은 상태이며, 그들의 구체적 생활양식이나 문화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거의 없다.

#### 삶의 모습

인도 인구의 73%가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한다. 많은 사람들은 가짜로 생존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수확하는 농부들이다. 그들의 농지는 극히 작으며 대개는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있다. 가축, 특히 뿔이 있는 소, 물소, 말, 노새 등을 키우는 것은 농업경제의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다. 그러나 힌두교의 영향으로 이러한 동물들은 고기로 이용되기도 하는 것의 전부가 짐을 지는 짐승들이다.

인도 문화는 기본적으로 힌두교 중심적이다. 많은 힌두교 조직들은, 엄격한 "카스트(caste)"(사회계급) 제도를 포함해 세속적인 인도 사회에도 폭넓은 영향력을 지닌다. 카스트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혈통, 종족, 족속을 의미한다. 힌두 사회는 일반적으로 동족결혼(같은 카스트 안에서만 결혼하는 것)을 하는 위계적인 카스트들로 나뉘어져 있다.

카스트는 직업이나 친족관계와 혈통에 의해 정의될 수 있으나 약

간의 예외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스트는 사회조직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부족사회를 제외하고는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고 있다.

브힘인들을 정확하게 카스트 제도 안에 위치를 갖출 만큼 그들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특정한 생활양식을 적절히 설명할 수는 없다. 브힘인들의 필요를 확인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략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 신앙

브힘인들은 주로 그들 조상의 전통과 종교를 따라서 전통종교(80%)를 믿는다. 그들의 종교는 주로 애니미즘이어서, 그들은 살아있는 생물과 또한 무생물들이 혼이나 영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또한 많은 브힘인들은 조상을 숭배

한다. 그들은 죽은 조상들의 영이 살아있고, 그 영들에게 식사를 주고 돌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영들을 적절히 달래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 영들이 배고프고 불만족하게 되어 악령이 된다고 생각한다.

브힘인들에게 미치는 힌두교의 영향은 매우 강하며, 그들의 종교적 행위들은 힌두교 신앙과 혼합되어 있다. 전부는 아니지만 힌두교도들 대다수는 최상의 존재를 믿는다. 어떤 힌두교도들은 모든 생명을 존중하며 야채만을 먹는다. 반면 다른 힌두교도들은 신전에 제사 드려진 고기를 아무 구애 없이 먹는다.

어떤 힌두교도들에게는 그들의 종교가 매우 개인적인 것이지만, 다른 힌두교도들에게는 비개인적이다. 대부분의 힌두교도들이 "브라마" (창조자), "시바" (파괴자), "비시누" (보존자), 여신 "샤크트리"를 숭배하는 반면, 그들은 또 다른 작

은 신들의 신전과 그들의 화신이 된 물체, 배우자나 자손도 숭배한다. 윤회(죽음과 재탄생의 계속적 순환)에 대한 믿음은 힌두교에서 한결 같이 믿는 특징 중의 하나다.

#### 필요로 하는 것들

다른 대부분의 정령승배자들과 마찬가지로 브힘인들은 많은 신들을 두려워하며 거기에 묶여 생활한다. 복음을 분명하게 소개받거나 들은 사람들이 거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한 사람은 더더욱 거의 없다. 또한 그들의 언어로 된 기독교 자료들은 없으며 현재 그들 가운데 사역하고 있는 선교단체도 없다. 브힘인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접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임 선교사, 성경 번역가, 기독교 매체 전문가, 열정적인 중보기도자들이 모두 필요하다.

## 인터넷 뉴스

### Internet News

#### 미 교인 3명 중 1명이 자살로 가족·지인 잃어

“교회에서 신도의 자살 시도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던 담임 목회자는 100명 중 4명에 불과했다. 같은 교회를 다니는 동료 교인들로 범주를 바꿔도 결과는 동일했다.”



밥 스미에타나 크리스챤티티튜데이(CT) 에디터는 미국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교회가 교인들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지난 8월 목회자 1000명과 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얻은 결과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살 시도로 생명을 잃은 자살 희생자 3명 중 1명(35%)은 사망 전 몇 달 동안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교회에 출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살로 가족이나 지인을 잃은 교인에게 ‘누가 자살 위험을 사전에 인지했느냐’고 묻는 결과 담임 목회자(4%)나 교인(4%)은 상당수가 알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내가 아는 한 없다’는 응답이 42%로 가장 많았고, 가족(28%), 친구(19%), 교회 밖 지인들(8%) 순이었다. 즉 교회 외부 관계자들이 교회 내부인보다 자살 위험을 더 많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스킷 매코널 이사는 “교회가 자살 위험군을 돕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두 알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자살이 여러 면에서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됐다. 교인 3분의 1(32%)은 자살로 지인이나 가족을 잃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교인 4분의 3(76%)은 자살 문제를 그들의 공동체에서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회가 자살 시도나 자살에 대한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는 응답도 84%나 됐다.

목사들은 이들을 돕고 싶어 하지만, 현실에서는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자의 80%가 ‘교회가 자살 위기를 겪고 있는 누군가를 도울 역량을 갖췄다’고 응답했지만, 이 중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한 비율은 30%에 그쳤다.

자살희생자나 가족, 지인을 바라보는 교인들의 시선엔 여전히 복합적인 감정이 섞여있었다. 스미에타나 에디터는 “교인들은 자살희생자의 친구나 가족이 자살이라는 낙인 때문에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살이 여전히 교회에서 금기사항으로 여겨지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교인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5%는 “교인들이 자살희생자의 가족을 돕기보다 자살과 관련된 소문을 양산한다”고 말했다.

리버티대 행동과학부 학장 로널드 호킨스는 “주님의 제자들은 자살밖에 선택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서 마음을 열고 다시 희망을 찾게 해야 한다”며 “이러한 연구들이 교회가 자살 방지에 힘을 쏟게 되는 촉매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펜스 부통령 '중동의 기독교인 보호에 앞장설 것'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동의 기독교도를 보호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펜스 부통령은 또 이를 위해 유엔에 대한 지원을 국무부 산하 대외 원조기구인 국제개발처(USAID)로 이관해 미국이 직접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시사지 애틀랜틱에 따르면 미국 내 보수 기독교 회합에 자주 참석해오고 있는 펜스 부통령은 지난 25일 '기독교도 방어' 모임에 참석해 중동의 기독교인 보호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주요 안보 어젠다 가운데 하나임을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오는 12월 중동의 기독교도와 모든 종교적 소수에 대한 박해를 종식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중동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펜스 부통령은 또 트럼프 행정부는 우선 정책목표 이행을 위해 유엔에 대한 지원금을 USAID로 돌려 종교 관련 단체에 대한 직접 지원에 나설 것을 밝혔다. 유엔이 종종 종교 관련 단체의 지원 요청을 거부해왔다면 유엔을 통한 지원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무부 대외 지원예산을 삭감하는 상황에서 펜스 부통령의 이러한 직접 지원 약속은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정책 어젠다에서 종교적 이슈를 우선시할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어젠다의 일환으로 기독교인 보호에 초점을 맞출 것을 시사하는 가운데 기독교가 그 태생지인 중동지역에서 전혀 없는 공격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급진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기독교인과 기독교 복음에 대한 증오에서 사악한 박해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더이상 기독교도들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이슬람국가(IS)를 완전 파괴할 때까지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테러리즘과 ‘비관용의 교도보’를 제거할 것이라고 다짐했었으나 펜스 부통령은 이날 연설을 통해 구체적 정책을 밝힌 것이다. 미국의 보수계 종교자유 옹호그룹들은 그동안 유엔을 통하지 않은 직접 자금 지원을 요청해왔다.

펜스 부통령은 독실한 기독교인답게 최근 국내 보수 기독교계의 대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지난 7월 '이스라엘을 위한 기독교도 연합', 5월에는 국제 종교자유에 관한 프랭클린 그레이엄 회의 등에 참석해 트럼프 행정부의 '기독교도 보호'정책을 전달한 바 있다.

#### 뉴욕, 내년부터 버스·지하철 주류광고 전면 금지

내년 1월부터 미국 뉴욕시의 버스와 지하철은 물론 역(驛)에서도 주류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MTA)는 25일 이사회를 열어 “미성년자의 음주를 막는 사회적 이익이 광고수익보다 더 중요하다”면서 만장일치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MTA는 이에 따라 신규 주류광고를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했으며, 기존 광고 계약이 연내 만료된 이후인 내년 1월부터 주류광고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뉴욕의 대중교통 이용객은 하루 16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MTA는 그동안 버스·지하철 주류광고로 연 2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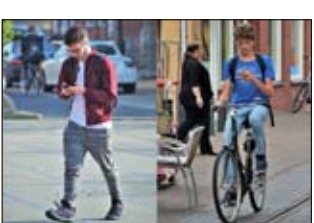
주류 반대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주류광고가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치고, 특히 미성년자의 음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미국주류협회들은 “광고금지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광고가 아니라 부모들이 미성년자들의 음주를 막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며 반발했다.

MTA는 앞서 지난 1992년 대중교통 시설에서 담배광고를 금지한 바 있으며, 2015년에는 자칫 잘못된 경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치 광고도 금지했다.

#### 하와이, 걸어가며 스마트폰 사용 벌금

미국 하와이주 주도인 호놀룰루에서 걸어가며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최대 10만 원이 넘는 벌금을 내야 한다.



호놀룰루 당국은 25일 미국에서 최초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이른바 ‘산만한 보행에 관한 법

(Distracted Walking Law)’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날부터 호놀룰루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전자책 단말기, 휴대용 게임기 등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며 걷다 경찰에 적발되면 15-35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두 번째부터는 벌금이 75-99달러로 올라간다.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며 무단횡단까지 하면 130달러를 물어야 한다.

길에 서서 스마트폰을 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긴급 상황 시 소방서나 경찰서에 신고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도 예외다. 현지 경찰은 커크 켈드웰 호놀룰루 시장이 법에 서명한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보행 중 전자기기 사용의 위험성을 알려 왔다.

미국 내 일부 도시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이 위험하다는 경고 메시지를 띄우는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의무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케네디 암살 기밀문서 공개 “암살범, KGB와 접촉”

미국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1917-1963)의 암살과 관련한 기밀문서가 사건 발생 54년 만에 공개됐다. 그러나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그간 제기돼온 각종 음모론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은 기밀해제 시한 종료에 따라 케네디 암살 관련 기밀문서 2891건을 26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케네디는 1963년 11월 22일 텍사스 주 달러스에서 카피레이드 중 리 하비 오즈월드(당시 24세)의 총에 맞아 숨졌다. 오즈월드는 암살이 될 뒤 교도소로 호송되던 중 나이트클럽 주인 잭 루비(당시 52세)에게 사살됐고, 루비도 4년 뒤 교도소에서 사망하면서 케네디 암살을 둘러싼 각종 음모론이 제기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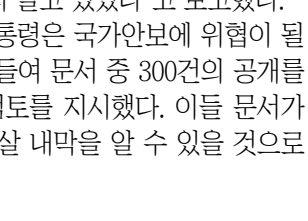
공개된 문서에는 음모론과 관련된 정황이 다수 포함됐다. 오즈월드는 범행 2개월 전 멕시코 주재 소련 대사관에 전화해 소련 첩보기관 KGB 요원과 서튼 러시아어로 대화를 나눴다. 미 중앙정보국(CIA)이 도청을 통해 얻은 정보로 소련 배후설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당시 소련은 “오즈월드는 미지망이”라면서 연계 가능성을 극구 부인했다. 미연방수사국(FBI) 문서에 따르면 오히려 KGB는 “(당시 부통령이던) 린든 B 존슨 전 미 대통령이 암살에 책임이 있다는 자료를 확보했다”고 알려졌다.

미국과 대립하던 쿠바와의 연루설을 암시하는 내용도 나왔다. 당시 CIA는 “쿠바 정보기관 관계자가 오즈월드를 암살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보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건의를 받아들여 문서 중 300건의 공개를 180일간 보류하고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들 문서가 다 공개돼야 자세한 암살 내막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카탈루냐 의회, 독립 선포안 가결

카탈루냐 자치의회가 27일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을 공식 선포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스페인 중앙정부는 이에 맞서 카탈루냐 자치권 박탈에 나서 양측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카탈루냐 자치의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독립 카탈루냐 공화국’ 선포 결의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전체 의원 135명 중 70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10명이 반대했다. 분리독립에 반대해온 정당 소속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떠났다.

이에 앞서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상원에 출석해 카탈루냐의 자치권을 빼앗고 중앙정부가 직접 통치하도록 헌법 155조 발동안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카탈루냐가 법치와 민주주의,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 방안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스페인 중앙정부는 헌법 155조에 따라 카탈루냐 자치권을 박탈한 뒤 푸지데몬 수반과 관료 150여명을 해임했다. 그리고 12월 21일 새 자치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조기 선거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푸지데몬은 지난 TV연설을 통해 주민들에게 “민주적 저항”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날 출근한 자치정부 공무원들은 별다른 저항이나 충돌 없이 정상 근무하고 있다.

한편 푸지데몬은 31일 자신의 벨기에 행에 대해 정치적 망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스페인 정부가 카탈루냐 자치의회를 새롭게 구성하기 위해 12월 21일 실시하는 조기선거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푸지데몬 수반이 전날 벨기에로 간 것에 대해 세간에서는 정치적 망명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많았다. 스페인 중앙정부가 카탈루냐의 자치권을 박탈하고 직접 통치에 들어가는 한편 그를 포함한 자치정부 각료들을 기소할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이날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망명을 위해 브뤼셀에 온 게 아니다”면서 “브뤼셀에 온 것은 이곳이 유럽연합(EU)의 수도이기 때문이다. 스페인 정부의 비민주적 행태와 대화를 하려는 카탈루냐인들의 노력을 세계에 보이기 위해서다”며 유럽 각국에 도움을 요청했다. 오후 12시 30분 예정됐던 이날 기자회견은 25분 넘게 지연된 끝에 시작됐다. 회견이 열린 브뤼셀 프레스클럽에는 각국에서 기자단 200여명이 몰리는 등 북새통을 이뤘다.

그러나 그를 둘러싼 상황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심지어 그가 이날 샤를 미셸 벨기에 총리실에 산하 건물의 공식 기자회견장 제공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벨기에 매체 라리브레가 보도했다. EU 회원국들이 카탈루냐에 우호적이지 않은 점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스페인 헌법 155조는 중앙정부가 위기 상황에 있는 지방정부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조항이다. 이전에 발동되면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과 각료들이 해임되고 자치정부 재정과 경찰력, 공영매체 등도 모두 중앙정부에 귀속된다. 중앙정부가 카탈루냐 행정을 직접 관할하는 가운데 6개월 이내에 지방의회 선거를 치르게 된다.

집권 국민당이 상원의 과반을 점하고 있는 데다 야당도 반대하지 않아 상원 전체회의에서 헌법 155 조 발동이 무난히 통과됐다. 전날 카를레스 푸지데몬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은 타협책으로 검토하던 조기 선거를 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스페인 정부가 카탈루냐 자치권 박탈 위협을 중단한다는 보장을 해주지 않아 조기 선거 시행 방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초 조기 선거 시행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강경파의 거센 반발에 뜻을 접었다. 푸지데몬은 지난 1일 독립 여부 주민투표 결과(투표율 43%, 찬성 90%)에 따라 2주 전 독립선언서에 서명했지만 즉각 시행하지 않고 스페인 정부에 협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라호이 총리는 카탈루냐가 독립 계획을 폐기하지 않는 한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고 협상을 거부했다.

#### 카탈루냐 지도부 반란죄 기소 방침

스페인 정부가 카탈루냐 자치정부와 의회 지도부를 반란죄로 기소할 방침이다.



호세 마누엘 마자스페인 검찰총장은 31일 브리핑에서 카탈루냐 자치정부와 자치의회 지도부에 반란죄를 적용하기 위한 판단을 법원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마자 총장은 구체적인 반란죄 적용 대상 인물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카를레스 푸지데몬(사진) 전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과 오리올 훈케라스 전 부수반, 카르메 포르카텔 자치의회 의장이 가장 유력하다. 이들에게는 반란죄 외에 내란선동 및 공공유용 혐의도 적용될 예정이다. 반란죄의 최고 형량은 30년, 내란선동죄의 최고형량은 15년이다.

스페인 검찰은 카탈루냐 자치정부와 의회 지도부의 분리독립 선포가 심각한 헌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수사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스페인 법원도 예심 절차를 통해 반란죄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카탈루냐 지도부에 대한 체포계획은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중앙정부는 헌법 155조에 따라 카탈루냐 자치권을 박탈한 뒤 푸지데몬 수반과 관료 150여명을 해임했다. 그리고 12월 21일 새 자치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조기 선거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푸지데몬은 지난 TV연설을 통해 주민들에게 “민주적 저항”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날 출근한 자치정부 공무원들은 별다른 저항이나 충돌 없이 정상 근무하고 있다.

한편 푸지데몬은 31일 자신의 벨기에 행에 대해 정치적 망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스페인 정부가 카탈루냐 자치의회를 새롭게 구성하기 위해 12월 21일 실시하는 조기선거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푸지데몬 수반이 전날 벨기에로 간 것에 대해 세간에서는 정치적 망명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많았다. 스페인 중앙정부가 카탈루냐의 자치권을 박탈하고 직접 통치에 들어가는 한편 그를 포함한 자치정부 각료들을 기소할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이날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망명을 위해 브뤼셀에 온 게 아니다”면서 “브뤼셀에 온 것은 이곳이 유럽연합(EU)의 수도이기 때문이다. 스페인 정부의 비민주적 행태와 대화를 하려는 카탈루냐인들의 노력을 세계에 보이기 위해서다”며 유럽 각국에 도움을 요청했다. 오후 12시 30분 예정됐던 이날 기자회견은 25분 넘게 지연된 끝에 시작됐다. 회견이 열린 브뤼셀 프레스클럽에는 각국에서 기자단 200여명이 몰리는 등 북새통을 이뤘다.

그러나 그를 둘러싼 상황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심지어 그가 이날 샤를 미셸 벨기에 총리실에 산하 건물의 공식 기자회견장 제공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벨기에 매체 라리브레가 보도했다. EU 회원국들이 카탈루냐에 우호적이지 않은 점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 안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SEED선교회 연구실장)

### 38. 황사선 목사(1885-1974)

황사선은 1885년 10월 18일 평북 의주군 위화면 위화도의 한 농가에서 8남매 중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9살 때에 아버지를 여의고 11살 때에 어머니를 잃어 큰형 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16세 때부터 천주학생이라는 비방을 받았는데 이 무렵 교회에 다닌 것으로 보인다. 큰 누나 황사성의 권유로 17세부터 28세까지 평양까지 걸기도 하고 당나귀도 타면서 숭실학교의 중학교정과 대학교정을 마치면서 교장 윌리엄 베이어드 선교사로부터 성경과 신학문을 배웠다.

이 기간 중 22세에 평북 선천 신성중학교의 교사가 되어 2년간 가르쳤고, 그 후 2년간 평북 강계 영실중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 삭도교회

숭실 학생들이 을사조약 타도를 선언하고 이근택의 집에 불을 지른 사건에 관여했던 황사선은 1907년에 안창호 등이 조직한 신민회에 가입하였다. 그런데 1911년 일제가 조작한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사건인 105인 사건, 일명 신민회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민회에 가입된 상황에서 그의 셋째 형 황사용의 주선으로 상해를 거쳐 여권도 없이 1913년 4월에 황사선과 그의 가족이 상항에 도착한다.

#### 상항한인교회

1914년 1월, 낮에는 성경학교에

서 공부하고 밤에는 서양인의 야학교에서 공부하던 황사선은 그 해 3월 상항교회 권사로 선정되었고, 그 해 4월 청년회 학문국장으로 선임되었다. 이듬해 태평양 연

어 상항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한다. 그는 위의 기간 중 태평양신학교에서 3년간 청강생으로 공부하였다. 그가 목회하던 기간 평균 출석교인은 75명이었다.

1930년 초 황사선은 안익태를 위하여 작은 음악회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안익태에게는 '위대한 감상과 위대한 정신으로서 예술의 극도의 연주는 금후 제 일생으로 다시 없을 것'이라고 회고했다. 이러한 감동이 애국가 작곡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그가 상항교회에서 받은 만년필로 애국가 곡조를 5



황사선 목사

들이 애국가를 부를 곳이 교회라며 건축현금을 드린 자도 있었다. 주일 예배시간은 오전 11시가 되었고 주일학교는 오전 10시였다.

황사선은 주일학교, 국어학교 및 엠위스 청년회 등의 2세 목회에 초점을 맞췄다. 상항 메이슨 스트리트 1321번지의 새 성전에 예배당과 주일학교와 청년회실이 구비된 것은 당연했다. 황사선은 주일학교를 재개하고 주일학교 교장으로서 1928년에는 교장에 양재명, 1929년에는 조응철이 수교했다. 1934년에는 1학년, 2학년, 3학년 그리고 청년반으로 나누어 운영하였는데 그 해 6월에는 성경의 역사적 사진과 조선 명성지 환동강연회 그리고 아버지날 축하회가 있었다. 그 해 9월에는 어린이 놀이터와 운동장을 조성하였다.

황사선은 1927년 이후 국어학교 교장이었다. 1929년에는 천윤분이 매일 약 두 시간씩 가르치고, 그 때 매일 한 시간씩 가르쳤고,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하기강습을 한 달 동안 실시했다. 1930년 7월부터 하기강습이 개강되어 문양목과 이종선이 가르쳤고, 학예회도 있었다.

하기강습만은 상항교회와 국민회상항지방회의 지원으로 가능했다. 1934년에는 황 목사 둘째 부인 황옥석과 김폴린이 학생들을 3반으로 나누어 가르쳤다. 1935년에는 교장에 양재명, 재무에 우병욱 그리고 교사에 김폴린이었다.

1937년 하기강습에는 교육전문가인 이진복이 교사로 일했고, 1938년에는 황사선의 둘째 부인인 황옥석이 교사로 수교했고, 양재명은 1931년 이후 교장으로 시무했다. 청년이 많지 않아 장년까지 합하여 엠위스청년회를 재조직했다. 1930년 중반에는 미국에서 출생한 2세들로 조직되었다.

1935년에는 오를랜드교회에서 상항, 오를랜드, 세크라멘토의 한인청년연합회가 열렸는데 약 70여 명이 참석하였다. 같은 달에 중국인 청년회와 연합회를 열고 민족간의 교류와 우의를 돈독게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 해 6월에는 한인졸업생 축하회를 개최했다. 그 해 11월에는 상항 교회와 오를랜드 청년회의 100여명이 모여 하와이에서 성장한 한인2세 청년들의 환영회를 열었다. 이듬 해 2월에는 졸업생 축하회가 있었다.

모아 광주학생사건으로 감옥에서 있는 학우들을 돕기로 했다. 황사선은 조국 독립에 헌신하였다. 흥사단 단장과 국민회 북미총회 부회장을 세 차례 역임하였다. 그는 의무금과 인상에 그리고 독립금을 납부했고, 상일운동 직후 1919년 신윤국 등 12명의 동지를 모아 청년혈성단을 조직하고 매달 10불씩 임시정부와 의용군을 후원하였고, 1941년 재미한족연합위원회가 조직될 때 황사선도 관여했다.

1931년 5월에 36년간 조선에서 사역한 아버지 박사 부부가 상항을 방문했을 때 만찬을 겸한 환영회를 베풀고 한국 소식을 들었고, 1936년 1월에 애담스 목사가 방문하여 한국 소식을 전해 주었다. 1930년 장인환 의사의 서거, 1931년 상해 임시정부의 손정도 목사의 별세, 1933년 이불창과 윤봉길 의사의 순국, 1939년 임정구 목사의 소천으로 이들의 추도식을 드림으로써 조국 독립의 의지가 결연했다.

황사선은 원산학생 연조금, 수재구제금, 기근구제금, 동래 실수학교 의연금, 재만 동포 동정금, 맞담 사스 재류 동포 구제금, 서간도, 맥시코 동포 구제금을 보내는 등 스스로 민족을 사랑했다. 산남지역에 큰 수해가 났을 때 상항교회 부인전도회의 주선으로 복구 후원금을 보냈다.

뿐만 아니라 황사선은 광복군 후원금을 보냈고, 흥 연과 함께 군자금을 모으고 중국군 제19로군병에게 보냈고,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1942년 1월에는 황사선의 인도로 신년전승기도를 드렸고, 상항교회 청년 중에서도 6명이 군대에 입대했다.

#### 은퇴와 소천

1942년 당시 상항교회는 황사선을 비롯하여 김장수 부목사와 지방전도사 양주은이 수교했다. 상항에 거주하는 한인의 수가 적어 교세가 확장될 기회는 희박했으나 그럼에도 교회 건물을 개수하려고 250달러를 모으는 등 열심을 내던 그 해 12월에 57세의 황사선은 은퇴했다. 그런데 목사인 황사선이 은퇴 후에도 교회를 섬겼다. 1943년 6월에 전도사로 본 교회에서 사역하였고, 그 해 11월 교회 수리비로 53원을 헌금했으며, 1944년 12월에는 중경동포 위문금을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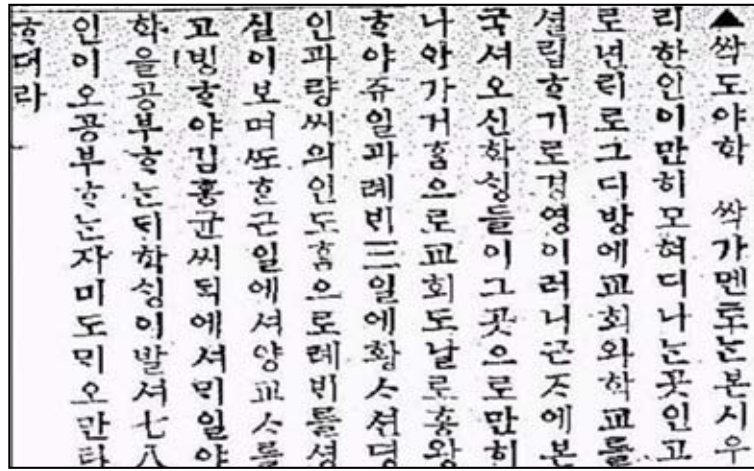
황사선은 1974년 6월 10일에 향년 89세로 소천했다. 그의 첫 부인인 황보씨는 1932년 3월 21일에 향년 38세로 세상을 떠났다. 이듬해 3월 그는 평양에서 김옥석과 재혼했다. 그는 반도, 명도, 엘리자베스, 매리 등 2남 2녀의 자녀를 두었다.

damien.sohn@gmail.com

### 숭실학교 졸업후 교사 재직, 신민회사건 후 상해 거쳐 1913년 상항도착

### 1928년 상항교회 담임목사로 1942년까지 시무...2세 목회에 초점

### 조국독립에 헌신, 안익태 위해 음악회 마련 애국가 작곡 감동 줘



삭도교회, 신한민보 1913년 11월 14일



상항교회 낙성식, 1930년

안 동양인선교지방회의 지방 전도사로 임명받았는데 한인양복 세탁점을 운영하는 자비량전도사였다. 1920년에는 황사선이 집사목사로 안수를 받아 상항교회 부목사로 사역했을 때에도 자비량 목사였다.

1928년에는 그가 장로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그의 숭실 동문인 이대위 목사가 소천하자 그를 이

선지에 옮겼다고 한다.

성전 축하예배와 낙성식은 1930년 6월 2일 오후 3시에 상항은 물론 인근 한인교회와 서양 교회와 중국 교회까지 포함한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대하게 하나님께 드렸다. 총회 보조금 25,000달러와 상항뿐 아니라 미주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과 서양 교인들이 헌금한 약 1,200달러가 들었다. 한인

1931년에는 교장에 양재명이 맡고, 재무에 황목사 첫째 부인 황보석, 서기에 김동우, 교사에 박필연 등으로 조직이 보강된 가운데 등록 학생 20명여가량이 어머니날과 아버지날에 기념식을 특별히 마련하였다.

1932년에는 세계적인 경제공황으로 학부형들이 학비를 내지 못하여 휴학이 불가피했지만 6월 하

1935년부터 1936년에 걸쳐 매주 회 모임이 있었는데 강연회를 보면 강사는 주로 청년회원들이었지만 피스크 박사와 애담스 목사 등 백인 강사도 있었다. 강연의 주제는 광주학생 사건의 경험담과 한국 독립운동의 진상 등 한국의 현실과 독립문제가 큰 초점을 받았다. 1937년에는 상항학생들이 저녁 한 끼를 단식하여 그 금액을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동부(NY, NJ)교회

<b>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b>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12:00 영아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8:45 금요일예배: 오후 8:00, 8:45 새벽기도: 오전 5:00(월-토) 성경공부: 오전 10:00(화,토) Tel: (718)265-2584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www.kccb.org	<b>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재현 주일예배: 오전 9:00,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아)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www.kccb.org	<b>뉴욕새생명장로교회</b>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30 주일3부예배: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찬양회: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6:00 금요일기도: 오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917)733-7387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chungkita@yaho.com	<b>뉴욕새사람교회</b>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11:00 영아예배: 오전 10:4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금요일기도: 오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886-2810, Fax: (718)338-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5	<b>뉴욕센트럴교회</b>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예배: 오전 8:00, 9: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45(월-토) http://www.cpcofny.org Tel: (718)279-2757, 2758, Fax: (718)279-1823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b>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b>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예배: 오전 7:30, 9: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718)461-7835, Fax: (718)938-1777 45-1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nickson.com	
<b>뉴저지성도교회</b>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일기도회: 오후 8:30 성경공부: (매주 1주, 3주) 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	<b>리빙스톤교회</b>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찬양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12:30 주일학교: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수요일 찬양예배: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b>빛과소금교회</b>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분 주일학교: 오후 1:50분 청년예배: 오후 8: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 토요일 오후 8시 Tel: (347)513-1351, cheongsu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b>주미전교회</b>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2부예배: 오전 6:00 주일3부예배: 오후 5:00 영아예배: 오후 1:00 Tel: (718)787-8999, bonhee@hotmail.com 70 Plandome Rd, Manhasset, NY 11030	<b>퀸즈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예배: 오전 8:30, 10:30 주일2부예배: 오전 12:15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88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o.org	<b>퀸즈한인교회</b> 주일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NCF영어: 오후 1:30 Tel: (718)672-1150 Fax: (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ny.org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입니다...
<b>브라질 새소망교회</b>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주일 5부예배: 오후 5:00 주일 6부예배: 오후 7:00 Rua (511)6693-9754, 6692-1165 AV. SANTA RITA, 215-PARI-3A0 PAULO-SP-BRASIL	<b>아르헨티나 제일교회</b> 담임목사: 최광언 주일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b>칠레 한인연합교회</b>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일기도: 저녁 9:00 714호브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8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b>토론토 가든교회</b>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아)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금요일예배: 오전 7:30 Tel: (416)490-9060 http://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b>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b> 선교사: 임한근 목사 파라과이신학대학 학장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6:00 (1, 2, 3, 부 스페니쉬 설교) Tel: (595)211-574-985 E-mail: hanjkr@hotmail.net Cervantes NC, 1001, Asuncion-PARAGUAY	<b>하와이 행복교회</b>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주일3부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b>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7: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Tel: (808)947-5252, Fax: (808)947-5151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 성경도 신앙 (43) 청교도의 가정생활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일교회)

(4) 뉴잉글랜드의 청교도들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은 퍼킨스의 가르침대로 아침과 저녁에 가정예배를 드렸다. 아침 예배는 주로 아침식사하기 전에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 드러졌는데, 죄에 대한 고백과 사죄를 위한 간구로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감사가 있는 위대 주기도로 마쳤다. 저녁예배는 잠자기 전에 드러졌는데, 하루 동안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성경 읽기, 시편 찬송, 기도로 이어졌다. 특별히 저녁예배를 통해 하루를 마감한 뒤에는 각자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루의 일들을 돌아봄으로 자아성찰을 하였고, 철저히 회개하며 죄악을 멀리함으로 성화된 삶을

언제나 끊이지 않았다. 뉴잉글랜드의 청교도 지도자였던 존 코튼은 가정예배를 드리는 여부가 은혜와 기도의 영을 소유했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되며,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라면 반드시 가정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청교도들은 언행일치의 모범을 자녀들에게 보임으로 신앙교육을 활성화하였다. 모범이 없는 교훈은 자녀교육에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엘리어저 매더(Eleazar Mather)는 "훈계만 아니라 모범을 보여야 아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스스로 본을 보이는 생활을 통해 교훈해야 합니다.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에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설교하였다.

의 신앙교육에 힘을 쏟았다. 좋은 환경을 마련해줌으로 자녀를 교육하는 것보다는 인간 본성에 남아있는 죄성을 멸함으로 인간을 개혁하고, 그가 세상을 개혁하게 하여 죄 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였고, 신앙적 가치관을 최우선으로 하는 학교 교육을 실시하였고, 가정 예배를 통해 매일 자녀의 신앙을 점검하고, 바른 신앙 가운데 서도록 인도하였으며, 신앙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함으로 경건한 사회를 만들어 나갔다. 청교도 토마스 왓슨(Thomas Watson) 목사는 "가정은 교회의 신학교"라고 했다. 청교도들은 가정이 성경과 도덕적인 교훈들을 배우는 가장 첫째 되는 장소라고 믿었다. 그들은 무엇보다 자녀들을

곧 1730년대 요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와 같은 지역에 살았던 막스 쥬크스(Max Jukes)의 가계를 비교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불신자였던 쥬크스는 1,026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그 가운데 300명이 어려서 죽었고 100명이 평균 13년 정도 교도소에서 생활하였으며, 190명은 창녀였고, 100명은 알코올 중독자로 아무도 미국 사회에 공헌한 사람이 없었다. 반면에, 청교도적인 신앙을 따라 가정을 이루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729명의 자손 가운데 300명의 복음전도자가 나왔고, 65명의 대학교수, 13명의 대학총장, 60명의 작가, 3명의 국회의원과 1명의 부통령이 나왔다. 청교도 정신을 따라 세워진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과 같은 대학들에 진학했던 위대한 영적인 지성적 거인들이 모두 다 건강하고 신령한 가정에서 먼저 길러진 튼튼한 가정의 일원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 나가는 말

이와 같이 청교도들은 신앙적 가치관을 중심으로 가정을 운영함으로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나아가

### 사·모·칼럼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의교회)

### 변화

때로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내 속사람이 그냥 알 때가 있다. 그런 변화의 때가 왔다는 것을 내 안에서 알아차릴 때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다니엘처럼 얼굴을 주께 고정하고 집중하며 간구해야 하지 않을까. 기회는 언제나 우리 곁을 지나가니까 말이다. 늘 조그만 문제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조금 언짢은 일에도 쉽게 포기해 버리며 스쳐 지나가는 말에도 미움을 차곡차곡 쌓아서 도대체 너그러움이란 모양조차 없는 좁디 좁아터진 내 마음속을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속속들이 들여다본다. 그렇게 썩고 냄새나는 고인 물처럼 한 치의 진전도 없이 정체된 나의 삶이 어찌하면 생명의 근원과도 이어지지 않은 것 같은 두려움을 문득 느낀다. 나이가 들어도 끝까지 변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고 원하는 것은 주님 닮는 것인데... 우리의 가슴이 하늘을 쳐다보며 점점 넓어져 가고 바다를 바라보며 점점 깊어져 간다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합하여 서로를 그런 마음으로 바라봐 줄 수 있다면 우리 오늘을 살며 가진 게 그리 많지 않아도 정말 행복했노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그렇게 생을 마감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다. 나이가 먹어 갈수록 우리의 육체는 쇠잔해가며 그것에 걸맞게 우리의 의지도 점점 약해져 가지만 은총으로 주어진 나의 삶이 저 구름 너머의 푸른 하늘에서 쏟아 부어 주시는 신령한 은혜들을 아주 조금만이라도 맛본다면 다시 나의 꺼져가는 영이 아이처럼 살아나서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히11:1) 라고 했다. 그걸 거꾸로 말하면 증거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깡이라는 말일게다. 증거란 어떤 것을 입증하기 위한 내용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입증해보일 내용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내용물은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그냥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이리라. 그래서 우리가 선포한다는 말과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일치될 때 믿음은 거기에서 역사하지 않을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요14:21)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왜 이런 어려운 계명을 주셨을까? 어린아이가 큰 물통을 들고 엄마를 도와준다고 끄덕대며 물을 나를 때 비록 물은 받은 다 쏟았지만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운 것처럼 주님은 그 저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 마음만 보시고도 '그래,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말씀하실 것 같다.

그렇다! 사람이 이 세상에 와서 가장 축복된 일 중에 하나는 가정을 만들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성장해서 또 자손을 이어가는 일일 텐데... 어떤 아이는 이런 말을 한다. "사모님 우리 집은 완전 교인 수준이에요."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교회에 와서 교인들과 인사할 나누는 것만큼만 대화한다. 아니 오히려 교회 와서 부모님 얼굴을 더 오래 본다고... 그렇다. 우리는 가족 중에 누구라도 한사람이 먼저 변하고 새 맘을 가져야 다른 가족들도 소망이 있지 않을까. 우리는 바깥 외면의 삶도 잘 살아내야겠지만 우리 가족안의 내면의 삶이 더 소중하고 풍성해져야 하리라. 그래서 사실은 바깥에서 들여다보는 화려하고 부요한 우리 가족 모습보다 가족 안에서 진짜 돌봐주고 사랑하는 풍성함이 더 값지고 귀한 것이리라.

그렇다. 너무 익숙해져서 잊혀진 서로의 고마움, 설렘, 감동들을 되찾는 변화가년부터 시작되어 그냥 돌맹이처럼 흩어졌던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돌아와 준 것만도 너무나 감사요 설렘이요 감동인 찬란한 변화를 만끽하면 좋겠다.

changsamo1020@gmail.com

## 가정예배 필수... 언행일치 모범 자녀에게 보임으로 신앙교육 활성화 하나님나라를 가정속에 실현하려는 청교도 비전이 역사속에서 실현

추구하였다. 이러한 자아성찰과 성화를 추구하는 삶을 통해 청교도 가정은 경건의 장으로 변화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다스리는 작은 교회요, 성전으로 꾸러지게 되었다.

5) 나다니엘 바나디스턴(Nathaniel Barnadiston)과 존 카터(John Carter)  
무엇보다 청교도들은 가정예배를 일상화하였다. 예를 들어, 뉴잉글랜드 청교도 가운데 하나였던 나다니엘 바나디스턴은 매일 식사를 마친 뒤 아침과 저녁에 성경을 읽고 기도한 후, 시편 찬송을 부르는 가정예배를 계속함으로 가정을 영적인 교회요 성전으로 만들었다.

존 카터는 하루 세 번씩 예배를 드렸다. 그는 기록하기를 "매일 세 번씩 시편이나 다른 성경을 읽은 후 자녀들과 종들에게 그들이 읽은 말씀 가운데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물었고, 읽은 문장을 복습하게 하였으며, 교훈과 신앙으로 양육하였다"고 하였다.

2) 가정 예배의 일상화  
청교도들은 가정예배를 드림으로 영국 국교도들과 자신들을 구분하였다. 리처드 백스터(Richard Baxter)는 목회의 목표를 전 교인이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두고, 심방을 통해 가정예배를 격려함으로 가정을 복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백스터는 "우리는 반드시 가정들에 특별한 눈을 가지고 그들이 질서 있게 잘 세워져 있는지, 가족구성원들의 의무들은 잘 수행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종교의 생명과 교회와 사회의 건강과 영광은 가정의 통치와 의무에 달려 있다. 만약 우리가 가정을 등한시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에게 부탁한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사람들의 개혁과 건강을 바란다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쏟아 부어 가정을 세우라"라고 했다.

이런 노력으로 그의 교구였던 키더민스터(Kidderminster)에서는 아침과 저녁에 찬송과 기도 소리가

신앙의 모범을 강조한 것은 그의 형제 잉크리스토 매더인데 그는 1680년 교회 회원들과 부모가 모범을 보임으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교훈연약을 맺었다. 그는 성도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가정에서 온전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의 가정에서 기도와 성경 읽는 것을 중요시하며 계속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도록 하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그리스도를 위해 양육함으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진정한 헌신으로 주님의 이름을 받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의 책임을 다할 것이며 필요할 때마다 그들에게 교리문답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도록 권면을 하고 명령을 하며 그들 앞에 거룩한 모범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며 그들의 회심과 구원을 위해 많이 기도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서약하였다.

또한 가정예배는 자녀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유언의 내용이기도 하였다. 로저 클랩(Roger Clap)은 그의 말년에 쓴 '비망록(Memoir)'을 통해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다: "네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가족 기도를 경시하지 말라. 매일 너의 가정에서 순서에 따라 성경의 한 부분을 읽으라. 네 가족들에게 신앙의 기초에 관하여 교훈하는 것을 잊지 말라. 그리고 네 스스로 기록하게 살며, 네 자녀들과 대화함으로 본이 되라." 이와 같이 청교도들은 가정예배를 강조하였다. 특히 가정을 영적인 요새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이렇듯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은 건전한 가정을 통한 경건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이렇게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은 건전한 가정을 통한 경건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특히 가정을 영적인 요새로 만들기 위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침으로 자녀

신앙에 대해 가르치고 제자 삼는 것이 부모의 영적인 책임이라고 믿었다. 토마스 두리를 목사는 "가정의 머리들은 그들의 가족들에게 성경을 읽고 그들의 자녀들과 하인들을 구원의 문제와 교리에 대해 교훈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한다"고 하며, "우리의 가정에서 성경을 읽고 가정의 지도자들이 가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가르치고 교훈해야 할 이 의사의 여지가 없는 의무 또한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청교도들은 자신의 가정을 목양하는 책임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토마스 두리를 목사는 "만약 하나님께서 가정의 창시자이시며, 소유자이시며 통치자이시며 후원자이시라면 가정은 반드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다"라고 가정예배의 필연성을 강조했다.

조지 휘필드(George Whitefield) 목사는 "한 남자는 다음 세 가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되, 첫째로 선지자로서 가족을 가르칠 것이요, 둘째 제사장으로서 가족을 위해 또 가족과 함께 기도할 것이요, 셋째 왕으로서 가족을 다스리고 지도하고 가족의 필요를 채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건을 실천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던 청교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았다. 또한 이런 노력의 결과로 청교도 사회는 인류역사상 가장 범죄율이 낮은 경건한 사회를 이루었고 그들의 자손은 미국 역사를 만들어 낸 주역이 되었다.

듀크대학 교수 조지 마스덴(George Marsden)의 연구보고에 의하면,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엔 미국의 정치, 문화, 경제계를 이끌어 왔던 인물 가운데 대부분이 청교도의 후손이며 청교도적인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는 것이다. 미국 복음주의 목사 빌 라헤이는 '성령충만한 가정의 비결'이라는 책에서 같은 시대 같은 장소에서 살았던 두 가정,

서 그들의 자녀들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경건한 후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가정 속에 실현하고자 하였던 청교도들의 비전은 역사 속에서 실현되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숙지하고 본받아야 할 모든 삶에 대한 뛰어난 귀감이 되고 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불신앙적인 문화와 가정을 파괴하려는 수많은 사회적 위험에 직면해 있다. 또한 산업사회와 정보사회가 요구하는 경쟁적인 삶은 가족 간의 결속을 약화시키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때에 그리스도인 남편들이 가정으로서의 영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가정예배를 통해 가족 간의 영적인 유대를 공고히 하고 무엇보다 자녀들을 바른 기독교 신앙으로 인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할 때이다.

무엇보다 부모들이 경건한 삶의 모범을 보임으로서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할 것이며 기쁨으로 가정예배에 참여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가장 중요한 방식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younsklee@hotmail.com

#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	\$100	유럽 .....	\$190
	캐나다 .....	\$110	남미 .....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	\$190	아프리카 .....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 _____ 목 사 <input type="checkbox"/> 영 어 : _____ 평 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_____
전화번호/Fax	( )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3면에서 계속)  
예를 들어, 올해 아프가니스탄에서 11명, 이라크에서 14명의 미군이 전사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군인은 지난해 총 6,785명이 전사했고, 올해 첫 5달 동안만 해도 무려 2,531명이 전사했다. 또한, 2017년 수만 명의 민간인이 희생됐지만, 미국인은 대체로 이 부분을 언급하기 꺼린다.

철수시켰지만 이라크와 시리아의 IS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의 세력이 커지면서 결국, 이전보다 소규모이긴 하지만 일부 군대를 다시 파병했다. 미국과 유럽에서의 테러와 트럼프 대통령이 검증 없이 언급한 유엔비어 때문에 미국 시민들 사이에 공포는 더욱 퍼졌다. 군사력은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한 요소지만 군사력이 국가 안보의 전부는 아니다. 그러므로 미국은 견고한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여러 기관과 협조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측

면을 무시하고 있다. 현 정권에서 국방부는 위상이 높아진 것 같다. 금융 위기 때 예산이 삭감된 이후 이제는 의회와 백악관에 국방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국방부는 장비를 현대화하고 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국방에 예산을 쏟아 부는 정책 기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불분명하다. 더 중요한 점은 미국의 시민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참전을 견딜 수 있는지의 문제다.





목회서신

하늘의 꿈을 품는 자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지난 9월 11일부터 10월 19일까지 39일 동안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 4개국을 다니며 해외한인 장로회 총회장으로 노회를 순방하며 15교회를 다니며 집회를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많은 선교사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들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많은 감동과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선교사들이 처한 상황과 나라는 달랐지만 모두가 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 때문에 그분들과 저는 처음 만나도 하나될 수 있었고

뜨거운 열정과 사랑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꿈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 꿈 때문에 선교사들은 때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쳐 주저앉았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 다니던 제자들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국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난 후 그들의 꿈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나라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은 성령이 임할때 풀수 있는 꿈입니다.

요엘2:28에 보면 "말세에 내게 내 영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너희 자녀들은 예언 할 것이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꿈을 함께 꾸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만난자들은 반드시 자기의 꿈이 깨어지고 예수님의 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4개국을 순방하며 노회를 방문하고 예배를 드린 중 일본노회에서 가장 감동스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츠쿠바 그리스도의사랑교회를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전에 찬양하는 한 형제가 어찌나 뜨겁게 뛰면서 찬양하든지 담임목사님인 채연배 목사님께 물어보니 목사님이 캠퍼스에서 전도한 일본형제 하야시였습니다. 대학에서 지질학 박사공부를 하던 중에 전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바로 박사공부를 중지하고 신학교에 들어가 공부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꿈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세상영광을 위한 꿈이 하나님나라를 위한 꿈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 꿈 때문에 부모님께 버림받고 열악한 상황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네. 주님과 걷어가는 날마다의 삶이 나에겐 축제의 날들이네..."하며 기타를 치며 춤추는 하야시를 보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쓰나미 같은 감동이 제 가슴에 물려왔습니다. 이런 청년들로 교회당은 가득 찼습니다. 한국에서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추세인데 일본은 청년들, 대학생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100명, 200

명이 모였어도 70%가 일본청년들이었고 20%가 중국청년들이고 나머지 10%만 한국청년들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새벽기도를 마치면 아침식사하고 바로 청년들과 함께 캠퍼스 전도에 나가서 오후에 돌아옵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4일을 전도하고 2일은 양육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주일은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이 하루 종일 교회를 떠나지 않고 성경공부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불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민족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준 일본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안고 찾아가 하나님나라의 꿈을 함께 꾸게 만드는 위대한 한인목사님들에게 눈물과 함께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으로 인해 예수님의 꿈을 함께 꾸는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일본노회 산하에 48개교회 중 이번엔 4개 교회를 다니며 설교했습니다. 요한동경교회와 요코하마교회, 오사카 텐바마시교회, 츠쿠바 그리스도의사랑교회였습니다. 예배드릴 때, 선교사들은 거의 젊은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다니며 설교한 일본노회 4교회가 모두 모두 한결같이 뜨거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대였습니다.

세계한인기독언론협, 제3회 독후감공모전 수상자 선정 우수상 박보라, 장려상 이정남, 김진해, 임보라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장 장영춘 목사)가 주최하고 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로고스 선교교회(회장 박도원 목사)가 후원한 제 3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에서 우수상 박보라, 장려상 이정남, 김진해, 임보라가 선정됐다. 지난 25일 언론협 임원들과 심사위원(백승철 목사, 전인철 목사)이 함께 모임을 갖고 최종 심사에 오른 10편의 작품들을 리뷰하며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심사위원장 백승철 목사는 "올해

공모에는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신학생, 직분자, 사모, 등단작가 등 다양한 계층과 해외에서까지 참여하는 열의를 보여 독후감 공모를 통해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대표적인 작가도 배출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여전히 독후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작품도 상당수였고 최우수작을 선정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았다"고 심사소감을 밝혔다.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은 12월 4일(월) 오전 11시 JJ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시상식을 마친

후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총회가 열린다. 한편 본 공모전 수상자는 에피포도예술인협회(대표 백승철)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우수: 박보라 집사(시애틀 지주교회), 장려: 이정남 성도(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 김진해 장로(브라질 썬버울로연합교회), 임보라 사모(LA 동양선교회) (이성자 기자)



KAPC 임원 및 노회장 연속회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재해 지역교회 박기억 목사에 5천불 전달 KAPC 캔커팀 임원 및 노회장 연속회의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임원 및 노회장 연속회의가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멕시코 캔커팀에서 열렸다. 24일에는 노회장 연속회의가 열렸다. 회의에 앞서 열린 예배는 사회 최중현 목사(서기), 기도 김영기 목사(총무), 설교 유재일 목사(총회장), 광고 서기, 축도 문성록 목사(전임 총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회의를 통해 총회 행정처리 지침, 총회가 위임한 행정명령, 신안건 등을 나누었다. 또 총회는 멕시코

자연재해 지역 교회 박기억 목사에 5천 달러의 성금을 전달했다. 총회는 행정처리 지침을 노회장들에게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회와 노회간의 모든 문서를 이메일로 하며, 노회산하 지교회를 위한 모든 청원서는 반드시 노회 서기를 통해야 한다. 또 총회비 납부를 강조했다. 총회 운영체제에 따라 해당교회의 총회비를 납부해야 청원서류가 공식으로 접수가 되며, 총회비가 미납한 교회는 총대권을 비롯해 모든 권리

가 보류된다. 총회비는 각 교회 경사비 결산액의 0.5%다. 청원서나 보고서는 총회 웹사이트 자료실에 등록된 최근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모든 노회는 정기노회 후 15일 이내에 노회 임원명단, 노회원 주소록, 노회 회의록, 노회현황 지교회 보고서 등을 총회에 보내야 한다. 교회의 총회소속 증명서는 총회가 발행하고, 목사의 노회소속증명서 등 목사에 대한 모든 증명서는 노회에서 발행한다. 총회는 노회장들의 의견들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며, 3개 당회 미만의 노회 정리에 많은 의견이 있었으며 임원회가 참고해 총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전임 총무 은퇴비 문제는 잘 마무리 됐다는 보고가 있었다. 마지막 날 수요예배는 사회 허상회 목사, 기도 김일도 장로, 말씀 김영수 목사(전임 총회장), 특송 사모 일동, 축도 김재열 목사(부총회장), 광고 최중현 목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총회장 유재일 목사의 인도로 마지막 평가회가 진행됐다. (기사제공:KAPC)



기독저널 개혁포럼을 마치고 강사들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종교개혁500주년기념 영적각성집회 및 개혁포럼 기독저널 주최, 강사 최학량 목사, 서성환 목사

기독저널(대표 임성식 목사)이 주최한 종교개혁500주년 기념 영적각성집회 및 개혁포럼이 지난 29일과 30일 뉴욕 호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열렸다. 30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개혁포럼은 한무 목사(뉴저지 브리얼장로교회 원로) 사회로 정관호 목사(의 개회기도 후 서성환 목사(브니엘장로교회 담임)와 최학량 목사(미주군목회 회장)가 발제했다. 서성환 목사는 "성경적 세계관과 종교개혁"이라는 주제로 종교개혁의 의미를 1)진화론적 과학주의에 기초한 무신론에 대한 성경적 변증과 복음전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2)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기독교적 진리는 무엇인가 3)기독교의 세속화(막몬주의, 기복사상, 교회세습)에 대한 성경적 개혁의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서 목사는 "개혁은 단순 변화가 아니고 교회 내에서 일어나야 하는 데 교회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 상황을 볼 때 시기적으로는 늦었다"며 "먼저, 성경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을 영적 세계와 물질세계를 창조하시고 통일되게 하셨다. 그 통일의 주체가 교회이며 과학은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학량 목사는 "개혁주의의 것발

성수주일"이라는 주제의 강의에서 군목 시절 주일에 예배를 할 수 없었던 명령에 불복하며 주일예배를 강행했던 간증을 하며 "교회의 것발은 주일이며 개혁주의의 것발은 성수주일"이라고 강조하고 "개혁주의는 이론이 아니고 삶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럼에 앞서 29일 저녁 6시에 열린 대회는 1부 찬양과 간증, 2부 영적각성집회로 나눠 진행됐다. 이만호 교협회장의 환영사와 김홍석 직전 교협회장의 기도에서 이어 허영란 목사(LA 빛과소금교회 선교목사)가 찬양과 간증을 했다. 2부는 인진한 목사 사회로 기도 김상태 뉴욕목사의 회장, 성경봉독 권현태 장로, 특별찬양 밀알중앙단, 강사소개 김영열 목사, 설교 최학량 목사("옛적 길 선한 길", 렘 6:16-17), 헌금기도 이수영 목사, 봉헌특송 조애실, 인사의 말씀 및 광고 임성식 목사, 축도 허걸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기독저널은 이번 집회를 계기로 뉴욕Kingdomizer를 출범하며 연구/심포지엄/세미나와 로고스포럼을 운영, 신앙공동체 정신 함양 및 강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원정 기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10월 정기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엘살바도르 황영진 선교사 사역보고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10월 정기예배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유상열 목사)가 지난 25일 10월 정기예배를 드리고 후원자의 밤 등

사역보고 시간을 가졌다. 이날 등 기구의 2대 회장을 지낸 황영진 선교사(엘살바도르)가 뉴욕

방문 중에 참석해 "주님이 맡기신 사명"(빌3:12-14)이라는 제목으로 사역보고와 더불어 말씀을 전했다. 황 선교사는 스페인어로 인사를 한 뒤 지난여름 단기선교팀이 방문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당시 사역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엘살바도르 정치 상황이 불안한 가운데 총재와 살상 등이 지속되고 있지만 선교센터가 있는 마을은 오지라서 안전하다"며 "선교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고 생명 다하는 날까지 선교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선교사는 현지인들의 상황을 전하며 "어른들은 캐톨릭에서 벗어나기 힘들지만 아이들은 쉽게 복음이 들어간다"며 "선교센터와 교회 설립을 통해 어린이들을 교육시켜 그 나라의 크리스천 리더로 세우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학교 설립과 공립학교 설립 등을 사역 비전으로 제시하며 기도를 당부했다. 예배는 박성원 목사 인도로 기도 안경순 목사, 설교 황영진 목사, 중보기도(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회장 및 회원, 결연아동, 선교사들, 후원자의 밤을 위해), 축도 박진하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2부 회무는 유상열 목사의 개회기도 후 진행돼 선교보고 황영진 목사, 사역보고 전희수 목사, 광고 박이스라엘 목사, 폐회기도 이종명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결연을 증가시키고 후원 금액을 높여야 한다는 공지가 있었다. 또 12월 10일(주) 오후 6시 뉴욕능력교회(담임 김홍철 목사)에서 열리는 2017 후원자의 밤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11월 월례회는 29일(수) 오전 10시30분 엘리머 장소는 미정. (유원정 기자)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제 3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 심사평



백승철 목사 (시인, 평론가, 에피포도예술인협회 대표)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장 장영춘 목사)가 주최한 제3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에서 최종심 오른 10편 중 4편이 선정되었다. 설교해 공모에는 평신도, 목회자, 신학생, 신학생, 직분자, 사모, 등단작가 등 다양한 계층과 미국을 비롯한 해외 참가가 늘었다는 것은 긍정적 측면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질적으로 향상된 수준 높은 독후감이 눈에 띄어 앞으로 독후감 공모를 통해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대표적인 작가도 배출될 것으로

기대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독후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작품도 상당수 있었다. 이를테면 독후감은 설교가 아닌데 설교문을 작성한 경우, 주어를 1인칭으로 하지 않고 2인칭, 3인칭을 사용한 경우, 독후감은 단순 책을 소개하는 서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서평에 많은 공간을 할애한 경우, 책의 내용에 대한 비평에만 심혈을 기울인 경우, 독후감은 단순 간증문이 아닌데 처음부터 끝까지 간증으로 가득한 경

우, 독후감은 책을 읽고 본인 자신이 느낀 감정과 변화를 기록하는 것인데 책을 통해 타인을 설득하려는 경우 등 독후감의 정의와도 상당한 거리가 있는 작품들도 눈에 띄었다. 위에 설명된 독후감의 일반적 정의와 신문지상과 언론, 방송을 통해 독후감 공모 제출방법에 기준에 의해 선별된 작품에서 우수상(1명), 장려상(3명)을 선정하였다. 최우수 작품을 선정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작품의 질이 지난해보다 월등히 높아졌다 는 것에 위안이 되었으며 또 다음 해 희망을 걸어본다. 우수상에 선정된 박보라(시애틀)가 읽은 서적은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이다. 독후감의 서두를 본서의 작가와 유사한 사례를 중화시켜 전개시키는 발상이 신선하였다. 글을 전개하

는 연결성과 문장력, 책의 내용을 자신의 환경에 녹여내는 문학적 글이다. 우수상으로 선정하는데 아무 의의가 없었다. 작가의 길에서 건승을 빈다. 장려상에는 3명이 선정되었다. 이정남(북가주)이 읽은 서적은 '감사 플러스 긍정 플러스'였다. 이정남은 박보라와 함께 우수상 최종심에 오른 작품이었다. 전체적인 책의 내용을 관통하고 있으며 책의 내용을 중 일부 소개하는 방식도 예사롭지 않았지만 그러다 보니 글을 읽은 본인의 감정에 집착하지 못한 아쉬움으로 장려상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김진해(브라질)와 임보라(캘리포니아)가 읽은 서적은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이다. 김진해의 독후감은 글의 내용이 탄실함과 적용성이 높았지만 전개하는 방향과 문장의 틀 형성이 립

이 되었다. 임보라는 전체적인 글의 균형과 문장력이 뛰어났지만 읽은 책과 본인 자신과의 연관성에 대한 감성이 약화되었다. 장려상으로 밀며 앞으로 기대를 걸어본다. 독후감 역시 문학의 형식 중 하나이다. 독후감을 잘 쓰게 되면 모는 박보라와 함께 우수상 최종심에 오른 작품이었다. 전체적인 책의 내용을 관통하고 있으며 책의 내용을 중 일부 소개하는 방식도 예사롭지 않았지만 그러다 보니 글을 읽은 본인의 감정에 집착하지 못한 아쉬움으로 장려상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김진해(브라질)와 임보라(캘리포니아)가 읽은 서적은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이다. 김진해의 독후감은 글의 내용이 탄실함과 적용성이 높았지만 전개하는 방향과 문장의 틀 형성이 립



# 동부교계 기사판



## 중부뉴저지교협연합부흥회

중부뉴저지 한인교회협의회가 주최하는 연합부흥회가 11월 10일(금)과 11일(토) 저녁 8시, 12일(주)은 저녁 7시에 갈보리교회에서 열린다. "성경충만한 그리스도인"(행1:8)라는 주제로 강사는 강동진 목사(충북 예수마음교회 담임).

▲문의: (732)822-4969

## 샬롯장로교회 추계 부흥사경회

샬롯장로교회(담임 나성근 목사) 추계 부흥사경회가 서울 보라성교회 담임목사 송일현 목사를 강사로 11월 10일부터 사흘간 개최된다.

▲문의: (704)877-6642, 529-0900

## 씨즌 스마트폰 기초반 강의

미주기독교 미디어그룹 씨즌(C-Zone)이 아이폰 사용자를 위한 스마트폰 기초반(74기)을 11월 2일(목)부터 9일(목)까지 2회에 걸쳐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전 12시 30분까지 120분 강의한다. 강의 내용은 아이폰에서 연락처, 전화 연락처 등록하기, 메시지 보내기, 알람 설정하기, 타이머, 사진저장, Facetime으로 영상통화하기, 이메일, 와이파이 연결법, 일정 관리, 알아두면 유용한 팁, 카카오톡 사용하기 기초 등이다. 선착순 접수. 수강료는 무료이고, 등록비 30달러는 뉴욕기독교방송을 선교 후원한다. 강사는 임근영 목사.

▲문의: (718)414-4848, 353-2537



뉴욕성실장로교회 이길호 담임목사가 김성근 선교사(오른쪽)에게 파송장을 전달하고 있다.

## “니카라과에서 죽겠다” 순교의지 밝혀 뉴욕성실장로교회, 김도균 선교사 파송예배

뉴욕성실장로교회(담임 이길호 목사)는 부목사로 교회를 섬기던 김도균 목사를 니카라과 선교사로 파송하며 지난 29일 오후 5시 선교사 파송예배를 드렸다.

파송예배는 교회가 소속한 미주 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동노회 소속 목사들과 성실교회 교인이 참석해 선교의 길을 떠나는 김도균 위원장 선교사 부부와 두 자녀들(주안, 주은)에게 애뜻한 마음을 전하며 기도를 약속했다.

이날 설교를 맡은 황은영 목사는 “주님이 택하신 그릇”(행9:10-16)이라는 제목으로 “통상 선교사들은 많은 고난을 겪는다. 이는 주님이 택하신 그릇을 쓰시기에 쉽고 유익하게 만들기 위한 주님이 하시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며 “개혁신앙의 선교원칙 하에서 영혼을 구하는 일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불법과 불신이 만연된 이 시대에 진리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 없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일 외에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그런 강한 선교사가 돼 승리하길 기

원한다”고 말했다. 선교사를 위해 권면은 조문휘 목사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우들을 위한 권면은 황상하 목사가 했으며 선교사를 위한 축사는 김남수 목사

와 이미 니카라과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기선 선교사가 했다. 김기선 선교사는 축하인사와 함께 현재 니카라과에는 22명의 선교사가 정기적으로 모임과 기도를 갖고 서로를 격려하고 있음을 알렸다. 김도균 선교사는 담사에서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선교사 가정이 되길 원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 드린다”며 “니카라과에 파송돼 그곳에서 죽기를 원한다”고 선교에 임하는 각오를 밝히고 성실장로교회와 담임 이길호 목사, 가족들에게 감사의 답사를 했다. 파송예배는 뉴욕동노회 소속 목사들이 각각 순서를 맡았다. 장기수 목사가 시작 기도, 허민수 목사가 성경봉독, 박희근 목사가 봉헌 기도, 동노회 목회자들의 축가, 조영길 목사가 축도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 주님 사랑으로 목회와 삶을... 뉴욕 총목회 27일 알리폰드 파크서 야외회

뉴욕일원의 총청도 출신 목회자들의 친목모임인 총목회가 지난 27일 알리폰드 파크에서 가을 야외회를 가졌다.

회장 신석환 목사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본문으로 '사랑'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전했다.

신 목사는 “우리는 말(설교)하는 사람들인데 그 말이 사랑이 바탕되지 않으면 쓸모없다”며 “목회 기간이 길어지면서 주님과 더 깊은 마음을 나누야하는데 오히려 더 형식적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자책이 있다. 사랑으로 교제하는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영적으로 무언의 협력과 도전과 격려와 위로가 있고, 남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삶과 목회가 되기를 바란다. 목회와 하면 할수록 두려움을 느끼기까지 한다. 한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말씀을 전하기 바란다”고 말하고 “고향의 정취를 나누는 이 모임이 목회의 협력

이 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오랜만에 야외모임을 가진 회원들은 바비큐를 오찬을 하며 답소를 나눴다. 정치색 배제를 강조하는 총목회는 20여명의 목회자들이 매일 모임을 갖고 오찬을 나누며 친목을 다지고 있다.

(유원정 기자)



회장 신석환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 “강하고 담대하라” ...영어회중 2명 퀸즈장로교회 장로 7명 임직감사에배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가 지난 29일 저녁 5시 장로임직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7명의 장로가 임직했으며 이중 2명은 영어회중 소속이다.

1부 예배는 김성국 목사 사회로 킹스퀘어의 서쪽으로 시작해 김성국 목사가 개회선언을 하고 이규본 목사의 기도, 이영삼 목사의 성경봉독(딤후2:15), 찬양대의 찬양 후 유재일 목사(KAPC총회장)가 설교했다.

유재일 목사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복의 근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 21세기는 ①영성운동 ②사역의 변화 ③불건전 이단들의 유혹이 있으니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라. 둘째, 부끄럼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라. 인간은 죄를 범할 때 부끄러워진다. 내 양심에 인정받는 성결된



퀸즈장로교회가 장로임직 감사예배에서 안수하고 있다.

삶을 살아야 한다. 셋째,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기 위해 ①참된 헌신 ②순종 ③순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클로리아싱어즈의 화답송이 있었으며 봉헌기도는 문중은 목사(KAPC뉴욕부노회장)가 했다.

2부 임직식은 서약(임직자와 교인들), 안수, 악수례, 공포, 임직패 수여로 이어졌다. 담임 김성국 목사는 안수기도를 인도하며 감격의 모습을 보였다.

권면은 이풍삼 목사(한인동산교회 담임)가 장로들에게, 허윤준 목사(KAPC뉴욕노회장)가 교인들에게 했으며 김재열 목사(KAPC부총회장)와 김도현 목사(퀸즈장로교회 영어회중)가 축사했다.

이풍삼 목사는 “임직자들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지 말라”고, 허윤준 목사는 “코람데오의 삶, 부모로서 예배의 모범을 보이고 담임목사를



퀸즈장로교회 장로임직 예배에서 임직받은 장로 7명



뉴욕청소년센터 이사회 정기총회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뉴욕청소년센터 새 이사장에 강영규 장로 이사회 제 23회 정기총회... 대표는 유보

뉴욕교협 산하 청소년센터(AYC, 대표 황영송 목사) 이사회(이사장 이상호 안수집사) 제 23회 정기총회를 새 이사장에 강영규 장로(뉴욕능력개발교회)를 선임했다. 대표는 책임자가 없어 당분간 유보됐다.

지난 30일 저녁 6시 뉴욕수정성결교회(담임 황영송 목사)에서 열린 이사회 정기총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최호섭 목사 인도로 교회회장 이만호 목사가 설교했다.

이만호 목사는 “의인의 기업”(시 37:18-26)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본문은 악인과 의인의 대조된 삶을 비교하고 있다. 의인은 영원성과 풍족성, 은혜성의 축복을 받는다”며 “절저히 패배한 것처럼 보였는데 예수님은 영원성의 주체자가 되셨으며, 고난지수가 높았던 노아와 다니엘, 욥은 누구보다 풍족함을 받았다. 이사회가 헌신할 때 오병이 이어 풍족함을 받을 것이다. 또 주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행통계 하신다”고 말하고 “이사회가 의인의 기업이 됨으로 영원성과 풍족성, 은혜성의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원정 기자)

## 웨스트포인트육사서 예배, 사과농장서 오찬 뉴욕장로연합회 10월 야외회 및 제 53차 기도회

대뉴욕지구 장로연합회(회장 손성대 장로)는 10월 야외회 및 제 53차 기도회가 지난 28일 열렸다.

오전 8시 뉴욕을 출발해 웨스트포인트에 위치한 미 육군사관학교를 투어하고 West Point Cadet Church(1910년에 지어진 고딕양식-여러 교회중 규모가 가장 크고 웅장한)에서 기도회를 드렸다.

1부 예배는 김주열 장로(행사준비위원장)의 사회로 정권식 장로의 기도, 송윤섭 장로의 성경봉독, 설

교는 분회 상임교인 김영호 장로가 시편 23편을 본문으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으며”라는 주제로 간단히 메시지를 전했다.

2부 야외회는 사과농장에서 준비해간 점심을 맛있게 먹으며 회장 손성대 장로의 인사후 식사기도 박용기 장로, 진행설명 이광모 장로의 설명이 있었다.

일행들은 웨스트포인트로 가는 고속도로 주변의 아름다운 단풍 절경을 보며 감탄했으며 미국 독립전쟁 당시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던 베이마운틴(NY State Park)과 허드슨 강을 내려다보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를 찬양했다.

또한 오고 가며 버스 안에서 간중의 시간을 갖고 아름다운 교제와 친교를 나눴다.

이날 출발 전엔 손성대 장로가 기도하고 뉴욕에 돌아온 후 폐회기도는 정덕성 장로가 함으로 37명 전원이 무사귀환 함을 감사했다.

(기사제공: 뉴욕장로연합회)



예장(합동총신측) 미주동부노회 목사 임직식을 마치고 임직자들과 순서말은 자들과 안수위원들이 기념촬영 했다.

## 책망 받을 것 없는 목사로... 예장(합동총신측) 미주동부노회 김광섭 김정길 목사 임직식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신측) 미주동부노회 목사 임직식이 지난 26일 저녁 5시30분 사랑의동산교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김광섭, 김정길 강도사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

임직식은 부노회장 유상열 목사(리빙스톤교회) 사회로 최호의 목사(서기) 기도 후 노회장 강신용 목사(사랑의동산교회)가 설교했다.

강신용 목사는 “구별된 직분”(딤후 3:1-5)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본문에서는 감독/장로/목사의 자격에 대해 15가지로 말하고 있지만 오늘은 3가지만 소개한다”며 “주의 종은 첫째, 책망 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 둘째,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한다. 셋째, 절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 목사는 “종의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낮아져서 섬기며 주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직분을 잘 감당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임직자 소개, 서약, 안수 기도, 성의직의 및 악수례, 선포, 안수증서 수여가 있었다.

권면은 이원호 목사(KAPC 뉴욕가든노회 중경회장)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6가지인 온유, 겸손, 착한 마음, 주는 마음, 두려워하지 않음, 욕

감동시키라”고 권면했다. 김재열 목사는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피 값으로 사신 교회에 장로된 것과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장로로 세우신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김도현 목사는 영어회중에서 처음 장로를 세운 것에 감격하며 “달란트와 은사가 있는 다음세대의 장로들”이라며 “초대교회 시절에 감독, 장로들은 가장 먼저 박박받고 고난 받았다. 삼급은 예수님 그 자체뿐이다. 타인을 사랑하며 양떼를 돌보는 장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찬양대의 축송, 기념품 증정, 답사 차상남 장로, 광고 김용생 장로, 축도 장영춘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차상남 장로는 장영춘 원로목사와 김성국 담임목사, 선배장로들에게 감사하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장로로 부끄럼 없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섬김과 충성, 헌신을 다하겠다”고 답사했다.

임직자는 다음과 같다. 차상남, 최원일, 함용식, 남형욱, 채영주, 최시몽, 황태현 장로.

(유원정 기자)



뉴욕장로연합회 참석자들이 야외회 및 기도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 “회개하며 강력한 대부흥 경험하자” “Back to the Bible” 2017 다민족 연합기도대회

남가주 전 지역 교회협의회를 비롯한 각 교계 12개 단체가 주최하고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대회 및 2017 다민족연합기도대회 준비위원회(대표회장 한기홍 목사)가 주관한 2017년 다민족연합기도대회가 은혜한인교회에서 10월 29일 오후 4시 40분부터 4시간에 걸쳐 1부 예배, 2부 기도회로 진행됐다.



목회자들이 단에 올라 무릎 꿇고 참회선언문을 낭독한 뒤 참회기도를 드리는 모습

CRU & ELIM 연합찬양팀의 찬양으로 시작된 예배는 대회장 환영 인사, 특별찬양, 주제설교, 특송 순으로 이어졌다.

대회장 한기홍牧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 기도회를 통해 미국이 다시 한 번 성경에서 벗어난 모든 일들을 회개하며 강력한 대 부흥을 경험하고 거룩성과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함으로 세계 사람들의 존경과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나라가 되도록 부르짖는 축복의 자리가 되자”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NETO FUNTES 목사(주님의영광교회 담임)의 부흥과 회복을 위한 기도가 있는 뒤 스가정의 회복 △교육 문화 회복 △생명보호 △부흥을 놓고 한목소리로 기도했다.

고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강권했다. 이어 소프라노 지경 집사의 특송이 있었다.

이어 종교개혁 500주년 참회선언문 낭독이 있는 후 민경엽 목사(나침반교회 담임)가 회개에 대해 기도한 후 △교회지도자들의 잘못 △하나님을 배반한 죄 △교회의 성령 총만하지 못한 죄 △미국이 말씀을 떠난 죄를 놓고 기도했다.

신승훈 목사(주님의영광교회 담임)의 부흥과 회복을 위한 기도가 있는 뒤 스가정의 회복 △교육 문화 회복 △생명보호 △부흥을 놓고 한목소리로 기도했다.

또한 고대형 목사(선한목자교회)는 미국과 지도자를 위해 기도했으며 이어 △미국의 정교도 신앙회복 △대통령과 행정부 △사법부와 입법부를 위해 기도했다.

또 김태형 목사(온누리교회)가 차세대와 선교에 대해 기도한 후 △캠퍼스 사역 △선교 △차세대교육, 부모의 자녀 제자화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함께 기도했다.

마지막으로 이호우 목사(좋은소식교회)는 어려움 속에 있는 도시와 나라들을 위해 기도한 후 △한국과 평창올림픽을 위해 △북한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어려움 당하는 도시와 나라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한편 참회선언문 낭독은 그동안 교민사회의 조통과 지탄이 되어 왔던 교계가 종교개혁 500주년의 참 뜻을 살리고, 성경적 가치관 회복을 위한 실천운동의 출발점으로 비춰졌으며 모든 목회자들이 강단으로 등단해 한국어와 영어로 낭독한 뒤 모든 목회자들이 진심으로 참회하고 부르짖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본 기도회는 송정명 목사(월드미션대학교총장)의 축도와 연합성가대의 할렐루야 찬양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번 기도회는 특별히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뜻 깊은 해로 모든 준비위원들은 수차례에 걸쳐 기도회 모임을 통해 기도도 준비하며 남가주 교계와 성도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성자 기자)



영대한국 ROTC 기독교연합회 LA지회 창립예배를 마치고 기념촬영

## 대한민국 ROTC 기독교연합회 LA 지회장에 남철우 목사 선임

대한민국 ROTC기독교연합회(회장 박영식) 회장단 및 임원 21명은 지난 28일 미주기독교방송(대표: 남철우 목사)에서 LA지회 교계 및 군선교회 관계자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LA지회 창립예배를 드렸다.

이들은 LA 방문 기간 중 총현선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남가주명성교회등을 방문하고 대한민국 군

선교회에 대한 보고회도 가졌다.

이날 LA지회장에는 남철우 목사가 선임되었고 지도목사로는 이병일 목사가 위촉됐다. LA지회는 매월 둘째와 넷째 주 토요일 오전 9시에 미주기독교방송에서 기도 모임을 갖고 있다.

▲연락처: (213)383-6800. (기사제공: 미주기독교방송)

##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한 ‘생명의전화’ 7-9월, 침묵전화 최다 178통

생명의전화(대표 바다윗 목사)는 지난 7월-9월 3개월간의 전화 상담 결과를 통해 현 이민사회의 어려운 상황을 본지에 알려왔다.

지난 3개월간 통화수는 총 553건이었고, 지난 19년간 총 통화수는 51,485건이다.

타국에서 이민의 삶을 살며 힘들고 슬플 때 가슴을 나누는 소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시작된 생명의 전화는 올해로 19년째 사역을 이어오고 있다.

금년에 보내온 통계자료에 의하면 침묵전화가 178통으로 막상 전화를 걸었지만 차마 입을 열지 못하는 안타까움의 극치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두 번째로 많은 상담이 정보안내로 65통의 전화가 있었다. 이 외에도 고독과 외로움이 58통, 결혼과 이혼, 질병문제가 그 뒤를 이었으며 자녀와의 갈등이나 법률문제, 부부갈등, 배우자 부정이나 고부간의 갈등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서부교계 게시판 west

### 비영리단체 설립, 회계 관련 무료 강의

비영리단체 설립 및 운영과 회계 관련한 무료 강의를 Information Center for Mission and Ministry(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 주관으로 11월 10일(금)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그레이스미션대학 도서관 GL2 강의실에서 개최된다. 강사는 제임스구 교수(그레이스미션대학교 행정처장과 교회행정 및 커뮤니케이션, NPO 담당). 강의와 관련한 기본 안내 자료는 당일 참석자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문의: (714)393-4595(Center)

### 목사장로부부찬양단 제 10회 정기연주회

남가주목사장로부부찬양단(단장 강평근 목사) 제 10회 정기연주회가 11월(토) 저녁 6시 아가페선교교회(담임 김요한목사)에서 개최된다. 본연주회 특별출연은 LA 남성선교합창단, LA Young Players, 에버그린 여성합창단이며 지휘 이재경 목사, 피아노 헬렌박 집사, 울건 사문리 사모가 각각 맡는다.  
▲문의: (818)454-2274

### 미주장신 개교40주년 기념 후원음악회

미주장신 개교 40주년 기념 후원음악회가 11월 6일(월) 저녁 7시30분 남가주동신교회(담임 백정우 목사)에서 열린다. 행사 후 간단한 간식과 기념품이 준비된다.  
▲문의: (562)926-1023

### 연세 사랑의 나눔 콘서트

남가주연세목회자회(회장 김기동 목사)가 주최하고 연대 남가주 총동문화(회장 방하섭)가 주관하는 종교개혁 500주년 추수감사절기념 연세 사랑의 나눔 콘서트가 11월 12일(주) 오후 4시30분 세리토스 생수의강선교회(담임 안동주 목사)에서 열린다. 사랑의 나눔 콘서트에는 남가주 연세콰이어, 미주여성코랄, 오렌지선교합창단, This Ability Orchestra, 남가주말일수어 찬양단, 랜디김 밴드와 타민족 찬양팀들이 대거 참여한다.  
▲문의: (714)262-1428

### LA기윤실 사회봉사상 수상자 추천 접수

LA기윤실(대표 박문규)은 지역 사회 봉사를 위해 일하는 이들을 널리 알리고 격려하기 위해 제정한 ‘LA기윤실 사회봉사상’ 제6회 수상자를 추천을 받고 있다. 수상자 추천 마감일은 11월 18일(토). 시상식은 오는 12월 2일(토) 예정이며 신청서는 LA 기윤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우편(3130 Wilshire Blvd #410, Los Angeles, CA, 90010)이나 이메일(email4lacem@gmail.com)로도 가능.  
▲문의: (213)387-1207

### 아주사 한인동문회 주최 세미나

아주사 한인동문회(회장 최갑식 목사)는 오는 11월 13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백석대 최갑종 전 총장을 초빙해 세미나를 개최한다. 회비 30달러. 장소는 East Campus, School of Business, Fermanian Conference Center, #109  
▲문의: (818)331-5478

### JesusKidz 교사세미나

JesusKidz(대표 임은희 전도사)는 4일(토) 오후 12시30분부터 4시까지 훌러튼장로교회(담임 노진걸 목사)에서 교사세미나를 개최한다. 찬양지도, 설교와 관련, DVD를 배부하며 풍선강의도 준비된다. 참가비는 없고 교재도 무료 배부한다.  
▲문의: (213)422-0022

바다윗 목사는 “지난 19년 동안 통계를 볼 때 가장 많은 상담 전화는 부부갈등과 배우자 부정, 가족 간의 갈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며 “더 많은 동포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싶은 심정과는 달리 곳곳에서 발생하는 불행 을 보며 불통의 한인사회가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화목한 한인 사회가 되기를 소망 한다”고 전했다.

한편 생명의 전화에서는 상담원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이어오고 있다.

자세한 것은 (213)480-0691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빌립보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하고 있는 오은규목사

## 빌립보서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 제시 남가주든든한교회 성경세미나, 강사 오은규 목사

남가주든든한교회(담임 김현인 목사)는 27일과 28일 양일간 오은규 목사를 초청, 빌립보서성경세미나를 개최했다. 오은규 목사는 자신의 저서 “한눈에 보는 빌립보서”를 교재를 참석자들에게 제공했다.

27일 세미나에서 오 목사는 “길은 곧 삶이라고 할 수 있다. 길을 잃는다는 의미는 장래의 목적을 잃어버린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정표인데 빌립보서는 바로 인생의 이정표다”라고 전제하고 “빌립보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가치 있는 삶은 내적인 나의 삶 가운데 항상 기쁨이 있어야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빌립보서의 구성은 두 편의 사도바울의 간청과 두 편의 설교로 크게 나눌 수 있다며 “1장 1-26은

자신의 삶을 통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간증하고 1:27-2:29은 모범자로서 합당하게 생활할 것과 3:1-4:9에 상급자로 생각하고 생활할 것을 설교한 뒤 4:10-마지막까지 능력자 주님을 간증하는 것으로 돼있다”며 “섬김과 대속물로 모범을 보이신 주님을 본받아 천국시민답게 살아가자”고 강권했다.

오은규 목사는 중남미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로 중남미 한인선교사대회를 통해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곳에서 성장한 한인 1.5세, 2세 선교동원과 중남미 현지인지도자 및 목회자 훈련을 위한 성경세미나 및 출판 사역을 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amosoh@gmail.com으로 연락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영어판, 중국어판 책도 판매합니다

강사: 라흥채 목사

##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 종교개혁 500주년...루터 재조명 책 출간 봇물

2017년 10월 한국사회는 500년 전 독일에서 '종교개혁'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수도사 마르틴 루터의 재발견 작업이 한창이다. 10월 31일은 1517년 그날 루터가 비텐베르크성 교회문에 면죄부 문제를 따지기 위해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다고 알려지면서 기념일이 된 날이다. 이를 앞두고 다방면에서 루터를 재조명하는 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동안 개신교 내부에서는 '이신칭의', '만인사제론' 등 루터의 신학에 주로 초점을 맞춰왔다. 하지만 올해엔 중세의 문을 닫고 근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루터의 개혁 정신 자체에 주목하며, 500년 전 루터처럼 지금 한국교회의 시대적 개혁 과제를 살피고 그 답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 루터가 묻는다 “한국교회는 지금,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독일교회와 한국에 파송한 이말테(루터대) 교수는 '서울에서 만난 루터'(신앙과지성사)를 내놨다. 그는 독일의 유학 중이던 아내 한정에(현성대 신학과) 교수의 모국을 이해하려고 5년 계획으로 한국을 찾았다가 25년째 뿌리를 박고 있다. 외부자인 동시에 내부인의 입장에서 날 선 비판을 하며 한국교회 곳곳을 찌른다.

이 교수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한국 개신교의 급속한 양적 성장기가 끝나고 위기에 처했다”며 한국교회에 종교개혁의 잣대를 들이댄다. 그는 “교단 내 금권선거” “장로임직과 헌금의 상관관계” “교회의 세습” 등을 언급하며 “500년 전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됐던 성직매매의 현대판”이라고 꼬집는다. 그는 “헌금이 예배 중 가장 중요한 순서로 느껴지고 교회 안에서 벌어진 갈등을 사회법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은 이미 본질을 잃어버린 기독교의 자화상”이라고 말한다. 신학교육 개혁도 주문한다. 이 교수는 “종교개혁 시대 천주교회의 약점 중 하나는 성직자들의 낮은 교육수준이었다”면서 “지금의 한국교회도 일반성도들의 교육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목사들이 더 많다”고 지적한다.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조명하는 각종 세미나와 포럼

의 단골강사로 나섰던 그는 한글 표현에 능숙하지 못하다며 양해를 구한다. 하지만 한국교회를 향한 애정 어린 지적엔 능숙함을 넘어 신랄함마저 느껴진다.

“종교개혁, 그리고 이후 500년(을유문화사)은 두 명의 교회사 전문가와 한 명의 기독교학자로서 살아 숨쉬는 덴마크 등 북유럽국가식의 ‘기독교회’ 가능성도 열어둔다.

박찬호 백석대 교수는 ‘개신교는 가톨릭을 이길 수 있을까?’(CLC)에서 목사이자 기독교학자로서 솔직한 질문을 던진다. 루터를 통해 시작된 개신교가 종교개혁의 반동으로 자기갱신을 이룬 가톨릭을 어떻게 상대할 수 있을지를 논점으로 다룬다.

그는 한국의 개신교가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이단이 횡행하는 현실 속에서 ‘이신칭성 그리스도인’이 늘고 있다고 진단한다. 노량해전에서 왜군의 화살을 맞은 이순신 장군이 ‘나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자신이 개신교인임을 감추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반면 가톨릭은 축발한 개혁 정신은 오늘날에도 심화, 재현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양 대표는 3부에서 1970년 이래 고도성장기에 형성된 ‘성직주의’ ‘성장주의’ ‘승리주의’ 세 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기존의 건물이나 장소에 갇힌 ‘고체교회’ 대신 새로운 대안의 모색을 촉

구한다. 모이는 사람들의 관계 표현에 능숙하지 못하다며 양해를 구한다. 하지만 한국교회를 향한 애정 어린 지적엔 능숙함을 넘어 신랄함마저 느껴진다.

“종교개혁, 그리고 이후 500년(을유문화사)은 두 명의 교회사 전문가와 한 명의 기독교학자로서 살아 숨쉬는 덴마크 등 북유럽국가식의 ‘기독교회’ 가능성도 열어둔다.

박찬호 백석대 교수는 ‘개신교는 가톨릭을 이길 수 있을까?’(CLC)에서 목사이자 기독교학자로서 솔직한 질문을 던진다. 루터를 통해 시작된 개신교가 종교개혁의 반동으로 자기갱신을 이룬 가톨릭을 어떻게 상대할 수 있을지를 논점으로 다룬다.

그는 한국의 개신교가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이단이 횡행하는 현실 속에서 ‘이신칭성 그리스도인’이 늘고 있다고 진단한다. 노량해전에서 왜군의 화살을 맞은 이순신 장군이 ‘나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자신이 개신교인임을 감추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반면 가톨릭은 축발한 개혁 정신은 오늘날에도 심화, 재현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양 대표는 3부에서 1970년 이래 고도성장기에 형성된 ‘성직주의’ ‘성장주의’ ‘승리주의’ 세 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기존의 건물이나 장소에 갇힌 ‘고체교회’ 대신 새로운 대안의 모색을 촉

의로는 이기지 못한다”며 “자유를 강조하는 개신교 특유의 사상으로만 가톨릭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한다.

인문학적으로 또 사회학적으로 접근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부패한 가톨릭을 개혁하고 종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루터 찬양 일변도의 평가에서 벗어난 책들이 눈에 띈다. ‘루터:신의 제국을 무너트린 종교개혁의 정치학’(제3의공간)이 대표적으로, 루터의 공과와 16세기 종교개혁의 명암을 균형있게 따져보고 있다.

국내 저자로는 서울대 서양사학과 박흥식 교수가 ‘미완의 개혁가, 마르틴 루터’(21세기북스)에서 역사가의 관점에서 루터의 한계를 주목조목 비판한다. 박 교수는 “루터는 복음이 하나님(하나님의 가톨릭 표기)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판관했다”며 “루터는 세상의 변화에 대해 주목하지 않았으며, 성경이라는 장을 통해서만 세상을 이해하려 했다”고 꼬집는다. 그러면서 “개신교가 가톨릭의 부패를 비판하며 그로부터 이탈해 독립한 지 500년이 지난 지금, 다수의 시민들은 한국에서 개신교보다 가톨릭이나 교황이 더 개혁적이라고 평가한다”며 “개신교가 과연 바른 교회를 건설했는지, 오늘날 종교에 요청되는 자리에서 있는지 평가해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와 기법만 하지 말고, 미완의 개혁을 완수하라는 다그침이 아프면서도 고맙게 느껴진다.

이밖에 김덕영 독일 카셀대 사회학과 교수의 ‘루터와 종교개혁’(도서출판 길)도 눈에 띈다. 사회학자의 관점에서 종교개혁이 어떻게 저서양에 ‘근대’를 각인했는지 분석하고 있다.

# “전쟁만은 막아야” ...10만명 무릎기도 드린다

## ‘국가와 민족, 평화를 위한 기도회’ 11월 12일 개최

한국 개신교계가 범교단 차원에서 한반도에서 북핵 위기를 몰아내고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연합기도회를 열기로 결의했다. 북한이 지난달 6차 핵실험과 잇따른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점증하는 안보위기 상황에서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고 교계가 초교과 차원의 목소리를 내기로 한 것이다. 특히 교계는 26일 발대식을 시발점으로 내달 7일 방한하는 노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에 대화를 촉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국가와민족을위한기도회준비위원회(준비위)는 다음 달 12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10만명이 참가하는 ‘국가와 민족, 평화를 위한 연합기도회’를 범교계 차원에서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같은 규모는 2015년 8월 광복절 서울시장 광장에서 수십만 명이 모인 ‘광복 70주년 한국교회 평화통일 기도회’ 이후 최대 규모다.

준비위원회는 이어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연합기도회를 위한 사전 발대식을 열었다.

준비위원회 집행위원장인 조성기 목사(한국교회평화통일기도회 기획위원장)는 “최근 북한의 핵위험으로 북한과 미국이 협박한 말을 주고받으면서 전쟁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며 “교계 지도자 40여명이 추석연휴 중인 지난 5일 모여 만장일치로 한국교회 위 기구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뜻을 모았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또 “한국교회가 일제 치하, 6·25 전쟁, 산업화, 민주화 등 역사의 변곡점마다 민족의 융성과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 왔듯 이번에도 기도해야 한다”며 연합기도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앞서 박경조 전 대한성공회 주교는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를 주제로 설교했다. 박 전 주교는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에게 항복하거나 폭력을 행

사하지 않고 비폭력으로 저항하며 십자가에 매달리는 제3의 길을 걸으셨다”며 “우리 눈앞에 일촉즉발의 전쟁 위험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평화를 이루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명근 통일부 장관은 “강한 안보와 동시에 제재와 압박, 대화와 협상을 모두 동원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안보 강화와 동시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등 협력을 통한 변화와 평화도 동시에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은 그동안 체제 유지란 명목으로 핵무기를 개발해 왔다고 밝혀 왔지만 최근에는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등 적화통일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확률은 매우 낮고, 또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대전제를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계 명사들도 기도회를 위한 제언자로 나섰다. 장상 전 이화여대 총장은 “평화통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다고 하신 것처럼 전국 각 교회 예배와 모임에서 들불처럼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현수 전 송실대 총장은 “한국교회가 남북평화를 이루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교파와 교단의 차이를 넘어 기도회의 자리로 나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주도층 예상대신 남북위원장은 “남북통일은 한국교회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며 “교회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평화통일을 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합기도회에는 한국기독교연합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등 3개 기관, 연합공동예장통합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등 40여개의 교단, 한국교회평화통일기도회 한국기독교회복지협의회 등 30여개 단체가 동참했다.

# “나부터 정직, 청렴, 성결하겠습니다”

## 2017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예배 개최

2017종교개혁500주년성령대회(대회장 소강석 목사)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세계성령중앙협의회(대표회장 이수형 목사)와 한국기독교성령연구연구원(원장 안준배 목사)이 주관한 2017종교개혁500주년기념예배가 10월 29일 오후 5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개최됐다.

예배는 준비위원장 장항희 목사가 사회를 맡아 세계성령중앙협의회 대표회장 이수형 목사 개회사로 시작됐다.

이수형 목사는 “개신교는 1517년 마르틴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이미 개혁된 교회이지만 끊임없이 개혁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날마다 새롭

고 새로워져야 한다”면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본질 회복운동이 한국교회회를 새롭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사무총장 강현식 목사가 기도, 정균양 목사가 성경봉독을 하였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찬양대의 찬양 이후 대회장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당회장)는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개혁은 나 자신부터’라는 제하의 설교를 전했다.

소강석 목사는 “하늘이 열리고 불같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사람이 되어 개혁자가 될 수 있다.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나부터 개혁할 때



교회를 바로 세우게 된다”면서 “성령 충만으로빛과 소금의 삶을 살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게 성경적 개혁의 퍼스트 무버가 되자”고 강조했다.

말씀 후 부대회장 이호선 목사 인도로 한국교회 개혁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고, 봉헌기도는 부대회장 권경환 목사, 기념사 민경배 목사, 개회사 김명혁 목사 박종화 목사,

개혁실천사 안준배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예배의 끝에는 김창곤 목사와 김중앙 선교사의 인도로 “나부터 정직하겠습니다, 나부터 청렴하겠습니다, 나부터 성결하겠습니다”라는 주제를 성도들과 함께 제창했고 상임대회장 김용완목사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쳤다.

(기사제공: 2017종교개혁500주년성령대회)

# 기독교대학생들 ‘신앙 확신’ 점점 약해져

## 학복합, 대학생 1,299명 조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다’고 고백하는 기독교 대학생이 2명 가운데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주일간 성경읽기와 개인기도에 사용한 시간은 합쳐서 1시간이 채 되지 않았다. 또 10명 중 3명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기독교 대학생들의 신앙 수준이 전반적으로 퇴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복음화협의회(학복합·상임대표 장근성 목사)는 30일 서울 성북구 성북중앙교회(김성운 목사)에서 ‘2017 한국 대학생 의식과 생활에 대한 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대학생 1299명(기독교인 350명 포함)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0일-8월 16일 진행됐다.

기독교 대학생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52.9%로 2012년(63%)보다 10.1% 포인트 줄었다.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인 신앙 교리를 수용하는 기독교 대학생이 5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반면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012년 17.3%에서 33.7%로 배가량 늘면서 신앙에 대한 확신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기독교 대학생들의 실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현상은 신앙생활의 대표적인 지표로 꼽히는 경건생활(기도·성경읽기)과 교회출석에서도 드러난다. 지난 1주일 동안 성경을 읽은 시간은 평균 24분에 그쳤다. 2012년(64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1주일간 기도한 시간 역시 2012년(59분)의 절반 수준인 31분이었다. 아예 성경을 읽지 않거나(63.7%) 기도를 하지 않는 비율(38.3%)도 5년 전 조사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독교인이라고 응답하면서도 교회에는 가지 않는 경우는 10명 중 3명꼴(28.3%)로 나타났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이유로는 ‘학업·아르바이트 등으로 시간이 없어서’가 45.5%로 가장 많았다. 경제적 어려움과 바쁜 일상이 기독교 대학생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자유로운 신앙생활’(24.2%), ‘신앙에 대한 회의’(10.1%)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도 포함됐다. 일반 대학생 가운데 향후 종교를 가질 의향이 있는 경우는 11.4%였다. 이들이 향후 믿고 싶은 종교로는 기독교가 35%로 1위였다. 다음은 가톨릭(29.6%), 불교(26%) 순이었다.

일반 대학생(기독교 포함)은 남북통일의 당위성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53.4%로 ‘반드시 통일돼야 한다’(46.6%)보다 더 높았다.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관련,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화하면 안 된다’(39%)는 답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혼서 신앙에 대한 확신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기독교 대학생들의 실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복합 상임대표 장 목사는 “신앙의 기초 지표인 교회출석, 성경읽기, 기도 등의 지표가 매우 좋지 않다”며 “2012년 설문 때보다 문제가 더 악화됐는데, 기독교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독교학인회(ESF) 대표 김성희 목사는 “일반 대학생들이 향후 가질 종교로 기독교를 가장 높게 꼽은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친구처럼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바 네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눅19:45-46).

‘교회당 매매 및 후임자 청빙. OO시, 매매가 O억, 주일출석 성도 수 OO명, 주변 상황: 아파트·원룸·주택이 어우러진 마을(교통편리), 매매 사유: 사역 전문, 연락처 010-0000-0000’.

최근 교계신문에 실린 광고다. 매도인은 광고에서 ‘교인 20명이 출석하고 주변 상황이 좋으니 그에 걸맞은 돈을 받고 사역지를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기불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회를 사고파는 일이 늘고 있다. 교인 수까지 계산해 권리금을 받기도 한다. 교회 매매가 일반사업체 사고파는 일 못지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교회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인터넷사이트 ‘기독교정보넷’에 들어가 보니 수백 건의 교회 매물이 사진 및 소개 글과 함께 올라와 있었다. 교계에서 교회나 교인 수 매매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A교회 목사는 교인들 모르게 교회를 팔려다 들켰다. 이 목사는 한몫 챙기고 교회를 떠났지만, 교인들은 상처를 입고 뿔뿔이 흩

어졌다. 상황이 이러니 “중세교회와 면죄부를 팔고 한국교회는 예배당을 판다”는 비아냥거림이 나오는 실정이다.

알게 모르게 자행되는 임직 매매도 교계의 치부다. 교회 장로나 안수집사, 권사 직분에 취임하는 사람에게 헌금이나 헌물을 요구한다. 물론 하나님 부르심에 감사해 기꺼이 헌금을 내는 사람도 있다.

문제는 의무적인 헌금 관행이 커졌다. 상황이 이러니 “중세교회와 면죄부를 팔고 한국교회는 예배당을 판다”는 비아냥거림이 나오는 실정이다.

다. B교회는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이 있기 며칠 전 편지를 발송했다. ‘의무금 납부’에 관한 건이었다. 편지에는 장로 OO만 원, 안수집사 및 권사 OO만원이 쓰여 있었고 O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임직 대상에서 제외되며 은행대출 희망자는 교회에서 알선해 준다는 내용이 있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장로나 집사가 된 뒤 빛을 지거나 시험에 빠진 교인도 있다.

교회에서 사고파는 것은 이번이 아니다. C교회 앞에는 주일이면 먹거리를 파는 이들이 장사전을 친다. 또한 대다수 교회는 바자나

일일찻집 등을 열고 온갖 먹거리와 물건을 사고판다.

D교회 인근 가게들은 교회와 연계하지 않으면 영업하기 어렵다. 교인들끼리 서로 팔아주는 관행 때문이다. 심지어 교회행사 때 리베이트를 주지 않으면 떡이나 김밥, 빵, 도서 등을 공급하지 못한다. E교회에서는 교회건물 구입 때 부동산중개업자인 장로가 거액의 뒷돈을 쟁했다는 소문이 나돌

기도 했다. 목회자도 예외는 아니다. 목사들은 말씀을 전하고 돈을 받는다. 상당수 목사는 틈만 나면 교회를 비우고 외부집회 강사로 나간다. 교인들은 이런 목사를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한다. 설교 말씀이 좋으니 여기저기 집회 요청이 들어오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는 ‘교차 청빙’을 하거나 친한 목사끼리 ‘순환 청빙’을 한다. 즉 ‘A목사는 B교회로, B목사는 C교회로’ 하는 식이다. 목사들이 끈끈한 그룹을 형성하고 서로 상대 교회를 찾아 사이 좋게 재정을 나눠 쓰는 셈이다.

복을 받으려면 헌금을 바치라고 은근히 압박하는 세속적인 목사도 있다. 예를 들면 일부는 부흥회 때 ‘복과 성공’을 설교하며 헌금을 강조한다. 교회에 피아노나 비품을 소란 헌납하라거나 담임목사 양복이나 승용차를 사 드리라고 강권하는 일도 있다. 건축헌금 독려도 단골 메뉴다.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가 훨씬 많다는 것을 잘 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물을 흐리게 한다는 말처럼 교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10월 31일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일이었다. 한국의 어슬픈 교회들은 입술로는 개혁신학을 자랑스레 떠벌린다. 하지만 교회 부패의 배후에는 거짓 목회자와 무지한 교인이 있다. 복음은 고귀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인데 유다처럼 자신의 영혼을 팔아 금과 은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안타까운 말이여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이유다.



# 교도소 선교칼럼 (31)



교도소 교목, TPPM대표  
**이영희 목사**

## 평안과 기쁨을 찾은 에릭(2)

지난 칼럼에서 나누었던 에릭의 놀라운 간증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에릭의 간증을 몇 가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에릭은 하나님께 기도 모임을 인도하라고 하신 후부터 매일 저녁 8시 30분에 중범자들의 방에서 기도 모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 모든 중범 재소자들은 규칙적으로 밤 9시부터 아침 4시까지 4시간씩 기도 시간을 가지기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바로 그전에 기도의 모임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에릭은 자신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기로 작정한 후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의 잘못을 책망하시며 정결케 해주고 계시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에릭은 특별히 과거에 자신이 조폭 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주고 악하게 행한 것으로 인해 죄지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잘못한 것도 모르고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돌아온 후 성령님께서 그가 전에 지은 죄를 하나하나 기억나게 해주고 회개를 시키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는 에릭에게 성령님께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회개시켜 주셨으니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으면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용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잘했네요. 교도관들에게도 사과를 했어요?" 에릭은 "네. 교도관들은 웃으면서 '에릭, 관망해요. 우리는 당신이 변화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라고 말하며 오히려 저를 격려했어요. 조폭의 세계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는 말 대신에 잘못했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사과는 법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모든 사람들에게 사과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그에게,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세요. 에릭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으므로 해야 할 일을 다 잘한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을 책망하지 말고 이것을 교훈 삼아 앞으로는 좀 더 조심스럽게 말을 하며 상대방을 배려하면 됩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위로를 받았습시다.

에릭은 지난주 금요일에 처음으로 제가 인도하는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목사님,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세례를 준 후, 성경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네가 어떻게 큰 일을 행하였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였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눅8:38-39). 그리고 이 성경말씀에 대해서 에릭이 간증을 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에릭은 자신의 어려웠던 삶, 그리고 마약하는 부모가 성폭행한 일, 그리고 자신이 9살 때 조폭에 가입하고 부모를 살해한 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삶을 주었다고 원망했던 것에 대해 고백했습니다. 끝내는 자살을 세 명이 비참하게 목숨을 잃고서야 하나님께 항복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교도소에서 저와 함께 사역하는 채플린(교도소 목사님)이 예배에 참석해서 에릭의 간증을 듣고는 너무나 놀라라며 기뻐하며 에릭을 격려했습니다.

에릭은 날마다 빠르게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 프로젝트에서 출판한 책들과 '예수님과 걷는 길'을 읽으며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며 더 많은 책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동안 변화 프로젝트에서 많은 종류의 신앙서적을 출판했기에 그 책들로 그의 영적 성장을 돕고 있다는 것이 주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범죄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의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부모를 살해한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며 사용하실 수가 있을까 하는 의문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회개를 받아주시며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교도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부흥에 너무나 감격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교도소에서만 기쁘게 사역을 하려고 결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에게 교도소에서만 섬기지 말고 밖에 있는 500교회를 방문하여 교도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부흥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문을 열어주시고 계십니다. 지난 주 일에는 변화프로젝트를 오랫동안 후원하고 있는 새문교회를 방문하러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교회를 방문하여 에릭의 놀라운 변화와 간증이야기를 성도님들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당신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세상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있든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감싸시며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에릭은 하나님을 만나기전에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웃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났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느끼는 사랑으로 인해 크게 웃음을 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릭의 17살 난 아들이 캘리포니아 교도소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후 자살을 하여 장례식을 치렀다는 소식을 듣고도 에릭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겸손히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을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마음의 평화가 그를 모든 걱정과 두려움에서 해방을 시켰다고 간증합니다. 그는 이제는 다른 재소자들과 카드게임을 하면서 잘못된 대화를 하는 것보다는 혼자서 성경을 더 읽고 하나님을 알고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도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 자살은 약한 자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살을 못했다는 에릭, 자신의 삶은 소망이 없으며 차라리 죽는 것이 고통을 멈추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아무나 붙잡고 싸웠던 에릭, 누군가 차라리 자신을 죽였으며 좋았어서 또 싸웠다는 에릭. 그런 에릭에게 소명을 주시므로 교도소에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일을 하게 하시는 주님.

이 놀라운 간증을 눈으로 보게 해주신다고 들게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에릭은 190년 정도의 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남은 자신의 인생을 교도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바치겠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새 삶을 살고 있다고, 어떤 환경에서라도 예수님만을 전할 거라고 고백합니다. 에릭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시십시오.

yeonghui.mcdonald@gmail.com



## 필리핀 민다나오섬

### 1. 계엄령 연장

지난 5월 23일 필리핀 정부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반군과의 교전이 벌어진 민다나오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필리핀 헌법에 따르면 계엄령은 처음 발동한 후 60일간 지속할 수 있고, 이후에는 의회 승인을 얻어야 연장할 수 있지만 현재 필리핀 의회는 두테르테 진영이 장악하고 있어 계엄령이 철폐될 가능성은 낮고, 12월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된 지 5개월이 지나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도 뉴스를 통해 아직 상황이 여수선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구 20만 명의 작은 마라위 시에서 일어난 일임에도, 2200만 명이 거주하는 민다나오 섬 전체에 계엄령을 선포한 것 또한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마라위 시에는 마우레 무장대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계엄령이 선포되고 나서 5개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피해를 당했으며, 군인들과 이슬람 반군들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교전이 장기화 되면서 무장반군 최소 847명, 군인과 경찰 163명, 민간인 47명 등 총 1천57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며칠 전, 군부대 연설에 앞서 "마라위시(市)가 테러리스트들의 영향력으로부터 해방됐다"며 "마라위 시의 재건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마라위 시는 산위에 있는 마라나오 무슬림 종족의 지역으로 폐쇄된 지역으로 앞으로 복음이 더욱 더 확산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2. 현탁이 경희대학 합격

지난 7월에 현탁이와 함께 한국에 가서 6개 대학교에 재외국민 수시 특별전형을 신청하였습니다. 5개 대학은 의외였고 1개 대학은 약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현탁이가 경희대 약대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현탁이의 대학 합격을 기뻐하였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현탁이는 지금 마닐라 UST 대학의 약학과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3학년 1학기까지만 공부할 것이며 12월에 수업을 마칠 것입니다.

필리핀의 남부 잠보양가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라온 현탁이는 그동안 현지인 학교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현탁이에게 지혜를 주셔서 한국의 대학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현지인 학교 안에서 공부를 하면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시야가 좁고 학업 성적이 향상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 지역이 한국의 여행 금지 구역이고 좀 외진 지역으로 외국인이 좀처럼 가길 꺼려하는 지역이지만 현탁이가 잘 성장해서 내년 3월부터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안식년으로 한국에 갔다가 선교지로 돌아갈 때는 늘 한국에 남아 있기를 그리워하였고 많이 울었는데 이제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공부할 길이 열렸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의 자녀가 좋은 학교와 환경에서 공부하여 미국이나 선진국으로 가서 공부하러 합니다.

(14면으로 계속)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서부(CA)교회안내

<p><b>남가주든든교회</b> 담임목사: 김현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p>	<p><b>남가주사랑교회</b>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영양예배: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p>	<p><b>감사한인교회</b>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미연합예배: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p>	<p><b>나성순복음교회</b>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미연합예배: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b>나성영락교회</b>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주일 6부예배: 오후 2:30(천년)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시(토)</p>	<p><b>나성제일교회</b> 담임목사: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새벽부: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p>	<p><b>나침반교회</b>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말씀묵상(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6:30 EM: 새벽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p>
<p><b>대흥장로교회</b>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영양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일예배: 저녁 7:30</p>	<p><b>디아스포라선교회</b>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포를 위해 헌신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p>	<p><b>미주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b>미주평안교회</b>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천년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p>	<p><b>빛과 소금의 교회</b>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금) 주일학교: 오전 6:00(토)</p>		
<p><b>베델한인교회</b>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주일학교: 오후 2:00 영양예배: 오후 9:15, 11: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p>	<p><b>LA 복음연합감리교회</b> 담임목사: 이영성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아동부/중고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7:00 성경연구(목요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b>복음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성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후 2:00(대학부) 주일 영양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일예배: 오전 6:00</p>	<p><b>세계소망교회</b>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b>요셉선교회</b>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저녁 7:30 금요일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p>	<p><b>얼바인침례교회</b> 담임목사: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후 2:00(천년) 새벽기도회: 오후 3:00(월-금) 주일학교: 오전 6:00(토)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p>	<p><b>월셔크리스천교회</b>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천년) 주일학교: 오후 2:00(천년)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6:00</p>
<p><b>은혜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온라인새벽기도회: 365일 24시간 온오프</p>	<p><b>주님세운교회</b>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천년)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50(월-토) 성경대행: 오후 7:20(금)</p>	<p><b>주님의영광교회</b>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p>	<p><b>좋은마음교회</b>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2:00(천년)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예배: 오전 6:00(토)</p>	<p><b>코너스톤 교회</b>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b>토렌스노인교회</b>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찬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후 2:00(천년) 새벽기도회: 오후 3:00(천년) 주일학교: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p>	<p><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복통

특별한 원인 없는 경우가 가장 흔해

배가 아파서 병원을 찾는 경우는 많은 사람이 한 번 정도는 경험했을 정도로 매우 흔한 내과 질환이다. 갑작스러운 복통과 설사, 구토 등 급성 장염 증상으로 병원을 찾을 수도 있고, 몇 개월 동안 위가 쓰리고 아파서일 수도 있다. 또 신장에 돌이 있어도 복부의 통증으로 오인하고 병원에 갈 수 있다. 이처럼 소화기 질환은 다른 분야의 질환과는 달리 그 증상이 매우 다양하고 일반인들에게 낮은 증상들도 많다.

- 20대 초반의 유학생 정 모 씨는 이를 전부터 하복부에 몹시 심한 통증을 느꼈다. 쥐어짜는 듯 한 통증이 계속 되어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설사나 변비는 없었고 구토도 없었다. 응급실에서 혈액 검사와 복부 단층 촬영을 했으나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었다. 진통제 주사를 맞아 통증이 없어졌고 정씨는 장경련이라는 진단을 받고 응급실을 나왔다.

- 60대 후반의 박 모씨는 심한 복통과 구토가 함께 나타나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처음에는 아침에 먹은 음식이 체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심해졌고 구토가 가라앉지 않았다. 혈액 검사상 급성 췌장염으로 진단되었고 정밀검사서 담낭의 돌이 췌장관을 막아서 췌장염을 일으켰던 것으로 밝혀졌다. 수술을 통해서 돌을 제거하는 담낭 절제술을 했다. 박 씨는 일주일 후 퇴원했다.

복통의 가장 흔한 원인은 특정한 원인 없이 오는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다. 위염이나 위궤양, 위식도 역류와 같은 위장 질환과 담석증이나 담낭 혹은 담도의 염증으로 인한 담낭염, 담도염, 췌장염 등은 흔히 보는 상부 위장관계통의 복통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또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들 장기에 악성종양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도 복통으로 병원을 찾는 원인이 된다.

하부 위장관 질환 중에서는 만성 변비도 매우 흔한 복통의 원인이 되고 대장염이나 궤양, 대장 게실염 등은 하복부 통증을 흔한 원인이다. 또 신장에 돌이 있거나 신장이나 방광에 염증이 있어도 하복부 통증 증상을 느낄 수 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감염성 장염이나 급성 간염도 복통을 일으킬 수 있다.

복통 환자가 외래 병원을 찾아오면 의사는 매우 긴장하게 된다. 급히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질환이나 급성 췌장염과 같이 입원이 필요한 내과 질환도 초기에는 증상이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통으로 병원을 찾아갈 때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의사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좋다.

박해와 선교현장(5)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 (2)

-종교: 수니파 이슬람교(90%), 시아파 이슬람교(9.7%)  
 -인구: 약 34,169,000명, 기독교인: 수천명(추정)  
 -박해정도: 매우 극심함, 박해순위 3위  
 -수도: 카불(Kabul)-주 박해요소: 이슬람교의 탄압(Islamic oppression), 부족간 적대감(Ethnic antagonism)



2. 박해배경

아프가니스탄은 지난 수 세기 간 불안정한 민족이었다. 원래 페르시아 치하에 있다가 1709년 새로운 국가로 독립했다. 아프간 북서부 지역은 '호라산(Khorasan)'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 단어는 2015년 1월 아프간 무장 세력이 이슬람국가에 충성을 맹세하고 '호라산 이슬람 왕국' 설립을 선언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 무장 세력은 아프간 북동부에서 정부군과 전투를 벌이고 시아 무슬림 하자라 공동체(Shia Hazara) 등 소수 집단을 끊임없이 공격해왔다.

서양권에서 유래된 '국가'라는 것은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생소한 개념이다. 사람들은 부족과 언어, 그리고 민족성에 충성심을 표하지만 국가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프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은 이러한 다중의 렌즈를 통해 관찰해야 한다. 수도 카불(Kabul)에서 집권했다고 해서 모든 주에서 정권을 쥐게 되는 것은 아니란 의미다. 이것으로 아프가니스탄 정치의 복잡한 성질이 어느 정도 설명될 수 있다.

1970년대 이래 아프가니스탄은 파키스탄, 인도, 러시아, 중국, 미국 등

인근 국가 및 세계 강대국들의 전쟁터가 되었다. 탈레반이 2015년 10월부터 짧은 기간 장악했던 쿤두즈(Kunduz)는 2001년 이래 탈레반이 점령한 첫 번째 큰 도시였다. 이로써 탈레반은 자신의 세력이 여전히 견제하다는 것을 드러냈다. 2016년 7월, 8



월 그리고 10월에 발생한 대규모 습격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아프간에 다른 무장 세력도 여럿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인 사상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조금도 놀라지 않다. 2016년 5월, 탈레반의 예전 수장이 2013년에 사망하고 나서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었다고 선언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후자가 무인기 공격에 사망하면서

탈레반의 움직임은 한동안 잠잠했다. 현 지도자 몰라 하이바툴라(Mullah Haibatulla)는 강경한 이슬람교 지도자로 알려져 있어 분쟁이 종료되거나 완화되기를 기대하기는 무리다. 현재 탈레반과의 모든 종류의 평화적인 협상이 일절 중단된 상태이며 가까운 시

일 내에는 대화를 재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극단주의 이슬람 단체들의 모금 역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영국 비정부기관 글로벌위트니스(Global Witness)는 2016년 6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아프간 북부 몇몇 무장 세력들이 귀중광물 수입으로 재정을 충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외 주요 수입원은 아편 등 마약 거래에서 비롯되며 이는 탈레반이 특

히 두드러진다. 이것이 탈레반이 마약 거래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는 남부 헬만드 주를 장악하려고 필사적으로 애쓰는 이유다. 마약 거래 소득은 현지 정부 관원들의 손에도 들어간다.

3. 박해 받는 교회의 유형들

개종한 기독교인 즉, 무슬림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MBBs)이 아프가니스탄의 유일한 기독교 존재 형식이라 할 수 있다(외국인 기독교 공동체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고 완전히 고립되어 있어 국가 상황에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통계에서 제외했음).

무슬림배경의 신자들(MBBs)들은 가족과 친지, 이웃 그리고 사회에 발각되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어떤 이들은 실제 가족에 의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 때문이다. 이들에게 기독교인으로 공개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도에 따르면 사장이 기독교인일 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추측으로 인해 상업과 사업장이 파괴된 경우마저 있었다고 한다.

(오픈도어)

(13면에서 계속)

저희는 그런 재정적인 형편이 전혀 안되었고, 한국에 가서 공부하였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만 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지를 결정할 때 자녀 교육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잠보양가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현탁이가 태어났고, 성장해왔습니다. 잠보양가 도시 안에는 한국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탁이는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 마닐라 교회에서 영어와 타갈로그, 한국어 통역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3. 학교 사무실 공사

8월부터 학교 기숙사 옆에 작은 사무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처음 세울 때가 2009년이었고, 2010년 6월부터 정상적인 수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학교 안에 제대로 된 사무실이 없어 서류와 장부들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고, 어느 때는 도서실, 어느 뎨 양호실에서, 어느 뎨 기숙사 거실 책상

에서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사무실이 완성되어야 서류, 장부, 복사기, 컴퓨터를 정리 정돈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여기 림빠 마을은 시내보다 모래와 자갈이 완산지라 저렴하지만 시내에서 공사 자재를 제거 직접 구입하여 가지고 가야해서 번거로움이 많습니다. 지난 7월에 한국에 갔을 때, 한국은 목수 하루 일당이 2십 만원이었고, 여기 저희 선교지의 목수 하루 일당은 5달러(한국 돈 6천원, 필리핀 돈 250페소)입니다. 필리핀 안에서도 저희 림빠 지역은 좀 외진 마을이라 일꾼들 인건비가 저렴한 편입니다.

이제까지 학교는 저와 일꾼들이 직접 공사하였는데, 공사비용이 마련되어야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공사를 시작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신실한 손길을 통해 채워주셨습니다. 이번에도 몇몇 분들이 개인적으로 특별 헌금을 해주셔서 공사 자재들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7월부터 11월까지 우기철인데 10월에 들어와서는 비가 더 많이 내려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재정이 부족하

여 일꾼들을 많이 고용하지 못하다보니 일이 생각보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학교의 모든 전기 공사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 제가 직접 작업하여 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공사가 끝까지 진행되어 빠른 시간 안에 사무실이 완공되기를 기도합니다.

4. 많은 비가 내림

태풍으로 인하여 여러 날 동안 계속해서 많은 비가 내려 잠보양가 도시는 여러 날째 학교에서 수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새희망 학교는 거의 피해가 없지만 근처 림빠 마을의 공립학교는 교실 안으로 물이 찼고, 운동장은 수영장으로 변했고, 학교 담장은 대부분 넘어졌고, 주민들 62 가정은 산사태와 파도의 위험 때문에 당분간 피신을 하였습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집을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이 사는 푸부란 마을은 파도가 높아 길이 막혔습니다. 푸부란 마을로 가는 또 다른 방법은 산을 넘어 비탈진 길을 조심히 내려가야 하는데 비가 많

이 내려 길이 미끄러워 위험합니다.

그 밖에 랍탐 마을의 여러 학생들의 집이 파도 때문에 파손을 당하였고, 열악한 환경 때문에 감기에 걸린 학생들이 많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피해를 입은 학생들 가족에게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재정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1. 선교지에서 늘 안전하게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2. 새희망 학교 사무실을 공사 중인데 끝까지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3. 예배에 무슬림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예수님에 대해 알아갈 수 있도록
4.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들 가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5. 한국의 어머니가 7월 교통신고 후 에 병원에 입원중인데 어머니의 소원이 다시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꼭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요청합니다.

오정운 공운자 선교사 ohgongtak@hanmail.net



Division of Faith

- ✓ 현수막 | 천막
- ✓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 ✓ 프로모션 상품
- ✓ 디자인서비스



교회 휴대용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전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디스플레이 제작! 맞춤형 서비스

카라반 캐노피는 18년의 대형 프린팅 전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등 다양한 디자인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크리스천 위클리 창간 15주년 특별기획

미 전역 어느 곳에서나 출발 가능

신청마감

2017년 12월 31일

이스라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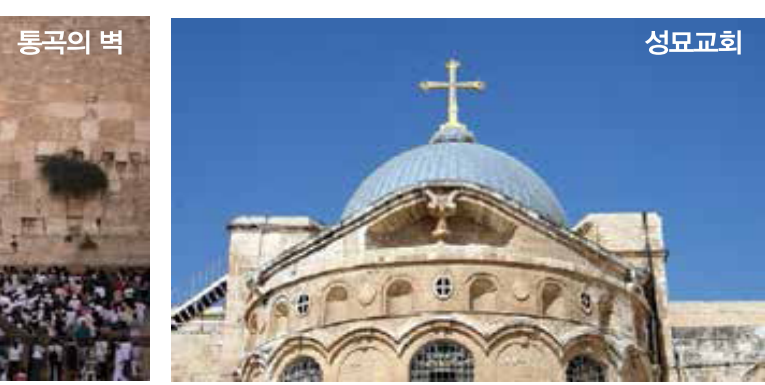
요르단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 성지순례



- 일 시: 2018년 2월 19일(월)-3월 1일(목)
- 참가비: 2,950달러
- 주 관: 크리스천 위클리
- 연락처: (213)383-2345
- 이메일 문의 cweeklyusa@gmail.com



이스라엘 · 요르단 성지순례 일정

일 자	지 역	교 통 편	시 간	일 정
제 1 일 2/19 (월)	LA 공항	TK0 080	18:10PM	LA공항집결. 이스타불행 항공기 탑승.
제 2 일 2/20 (화)	이스탄불 텔아비브	TK0864	17:15PM 19:45PM	이스탄불 도착. 텔아비브행 항공기탑승. 텔아비브 도착 (21:50) 후 휴식 HOTEL:
제 3 일 2/21 (수)	텔아비브 예루살렘	전용버스	08:00A	호텔 조식 후 감람산, 승전교회, 주기도문교회, 눈물교회, 겟세마네 동산, 베데스다 연못 등, 순례 후 휴식. HOTEL:
제 4 일 2/22 (목)	예루살렘	전용버스	08:00A	심자기의 길, 골고다 언덕, 성묘교회, 통곡의 벽, 시온산, 마가의 다락방, 다윗왕 가묘, 베드로 통곡교회, 베들레헴 탄생교회, 목자들의 들판, 순례 후 휴식. HOTEL:
제 5 일 2/23 (금)	여리고 사 해	전용버스	09:00A	여리고, 롯의 소금기둥, 쿨란, 맛사다 (케이블카 탑승), 순례 후 사해 도착 후 호텔 투숙, (사해 수영) HOTEL:
제 6 일 2/24 (토)	사 해 아라드 갈릴리	전용버스	09:00A	유대인 마을 아라드, 엔게디 골짜기, 시함산 조망, 엘리사의 샘, 식계요의 뽕나무, 요단강 가스텔야후드 예수님 침례터 순례 후 호텔 휴식. HOTEL:
제 7 일 2/25 (일)	나사렛 가 나 갈릴리	전용버스	08:00A	가이사라, 갈릴산 엘리야의 기념교회, 므깃도 (아마겔돈), 나사렛 마리아 수태고지교회, 요셉교회,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 갈릴리호수 유람선 탑승 후 호텔 휴식. HOTEL:
제 8 일 2/26 (월)	갈릴리 벳 산 암 만	전용버스	08:00A	텔단, 가이사라 빌립보 (바니아스), 바니아스 폭포, 가버나움, 베드로 수위권 교회, 오병이어 교회, 팔복교회 (산상수훈), 갈릴리 베드로 물고기로 증식, 벳산 국경통과, 요르단 입국 후 압복강 경유하여 암만 도착 후 휴식. HOTEL:
제 9 일 2/27 (화)	암 만 페트라	전용버스	07:00A	와디무사 (모세의 샘), 호르산 조망, 페트라 (시크 알카네즈 사원, 원형극장, 비잔틴시대 교회) 순례 후 호텔 휴식 HOTEL:
제 10 일 2/28 (수)	암만	전용버스	08:00A	아르논 골짜기, 길하렛셋 (카락성 조망), 세렛시내, 메데바 (모자이크 지도), 느보산에서 가나안 조망, 모세의 기념교회, 순례 후 호텔 휴식. HOTEL:
제 11 일 3/1 (목)	암만 이스탄불	TK0813 TK0079	06:40A 13:05P	암만 출발 이스타불 행 항공기 탑승(09:05 도착). 이스타불 발 LA행 항공기 탑승. LA 도착